

디지털 시대  
Smart Old의  
스마트한 은퇴생활



신한 미래설계보고서 2022

SMART OLD ————— 디지털 시대 Smart Old의 스마트한 은퇴생활

신한미래설계

 **신한금융그룹 퇴직연금부문**  
 신한은행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신한미래설계**

신한 미래설계보고서 2022

디지로그 시대 Smart Old의  
스마트한 은퇴생활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명.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 주기가 길어지며 소중한 이들과 더 오래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퇴직 이후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풍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신한은행은 8년 전 '신한미래설계' 브랜드를 출시하고

다양한 은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마다 은퇴보고서를 통해 노후준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신한 미래설계보고서 2022』에는 3050세대 자산관리 트렌드와 스마트한 은퇴생활을 위한 10가지 전략, 키워드 '디지로그(Digilog)'로 재해석한 라이프스타일까지 알찬 정보를 가득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객님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은행장 권옥등

# CONTENTS

## INTRO

당신을 위한 '쏠라이프'를 설계하라 ..... 06

## 리서치

### I. '쏠라이프'를 위한 은퇴설계 현주소

당신의 퇴직연금, 어떠하십니까? .....	11
당신의 은퇴, 안녕하십니까? .....	22
당신의 일상,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	30

## 재무 부문

### II. 쏠드족의 진짜 은퇴생활, '쏠라이프'

#. 은퇴 20년 차, 벌써 돈이 떨어지다니... .....	38
#. 은퇴 후에도 '평생 월급'이 있다고? .....	46
#. 은퇴 후 9회 말 인생,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	64
#. 소중한 내 인생, 마무리도 스마트하게! .....	72
#. 은퇴한 다음날... .....	79

## 비재무 부문

### III. 시니어 라이프 '디지로그'

이제, 디지털·Digital! .....	88
다시, 아날로그·Analog! .....	98

※ **쏠라이프** : 'Smart + OLé + Life'의 줄임말로써 OLé는 좋아, 됐어, 브라보 등 기쁨과 공감을 뜻하는 스페인어이다. 즉 쏠라이프란 스마트 시니어를 뜻하는 쏠드족이 은퇴 이후에도 철저한 연금 설계와 돈이 일하게 하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해피 시니어 라이프를 뜻한다.

## 디지로그 시대에 누리는 속 팍 찬 은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도 바로 지금이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공부하고 돈 벌고 자식을 키우는 등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또 진실하게 살아내고 이제 은퇴 앞에 선 당신! 에너지 넘치던 20대의 풋풋한 젊음은 남아 있지 않지만, 에베레스트산도 한달음에 올라갈 것만 같던 탄탄한 다리는 아니지만, 은퇴 앞에 선 바로 지금이 당신의 가장 젊은 날이자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

'디지털'로만 내달리던 세상은 이제 '디지로그'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첨단 기술만으로는 화룡점정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을 말하고 있다. 차가운 기술 위에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더해야 진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어쩌면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혈기만으로는 안 되고 연륜이 주는 깊이를 더해야 진짜 인생의 맛을 낸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시니어 세대야말로 진정한 디지로그 신인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은퇴 앞에 선 당신, 초등학교 입학 앞둔 아이처럼 설레는 맘으로 새 인생을 준비하라. 한글을 떼던 열정으로 은퇴를 설계하라. 당신은 초등학교 입학처럼 풋풋한 출발선에 서 있다. 시니어 인생은 청춘보다 더 깊고 찬란한 '푸른빛'이다.

# 당신을 위한 '쏠라이프'를 설계하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고령화로 인해 생긴 시간은 준비된 시니어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다.

탄탄한 연금설계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생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일하게 만드는 장기투자를 통해 나이 들수록 더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당신을 위한 '쏠라이프'를 설계해 보자.

## '은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많은 사람은 '은퇴'라고 하면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우려, 노화로 인한 질병, 또 외로움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은퇴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설레고 기다려지는 은퇴, 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서 '쏠라이프'를 제시한다.

'쏠라이프'란 'Smart + OLé + Life'의 줄임말로써 'OLé'는 좋아, 됐어, 브라보 등 기쁨과 공감을 뜻하는 스페인어이다. 즉 쏠라이프란 2020년 신한은행이 제시한 스마트 시니어를 뜻하는 쏠드족이 은퇴 이후에도 돈이 일하게 하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해피 시니어 라이프를 뜻한다. 이러한 쏠라이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 첫째, 베이스캠프를 세워라.

은퇴설계의 가장 기본은 연금설계다. 공적연금부터 사적연금까지 연금을 설계하여 든든한 기초를 만들자.

### ✓ 둘째, 당신의 돈이 계속 일하게 하라.

당신은 은퇴를 하지만 당신의 돈은 은퇴시키지 말자. 고령화로 주어진 길고 긴 은퇴 후의 시간을 장기복리투자에 활용한다면 세월이 지날수록 공간이 비는 게 아니라 지갑이 두둑해질 것이다.

### ✓ 셋째, 당신 자신을 준비하라.

어떤 연금이나 자산도 당신 자신, 건강하고 능력 있는 당신 자신의 가능성을 능가할 수 없다. 그러니 은퇴할 때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준비하라.

이처럼 쏠라이프는 전략적 설계를 통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꿈이다.

그러므로 꿈꿔라, 설계하라! 당신이 은퇴 후 빛나는 삶을 누리며 "OLé"를 외칠 수 있도록 신한이 응원한다.

I

# ‘쏠라이프’를 위한 은퇴설계 현주소



당신의 퇴직연금, 어떠하십니까?

당신의 은퇴,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일상,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 직장인 대상 퇴직연금 및 은퇴 준비 실태조사



- 조사 대상** 30세~59세 직장인 중 퇴직연금 가입자
- 표본 규모** 30대·40대·50대 각 100명씩 총 300명  
(여성·남성 150명씩 균등 할당)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 기간** 2022년 3월 28일 ~ 4월 1일
- 조사 기관** (주)마크로밀엠브레인

# 당신의 퇴직연금, 어떠하십니까?

공적연금만으로는 풍요로운 은퇴생활을 누리기 힘든 현실 속에서 퇴직연금을 활용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시행에 따라 DC 및 IRP 계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슬라이프 은퇴설계를 위해 우리의 퇴직연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진단해 본다.

## CONTENTS

- 은퇴 준비 위한 저축 방법
-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기관
- IRP 금융기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 퇴직연금 가입기관 변경 경험 및 만족도
- 퇴직연금 가입기관 변경 의향 및 이유
- 보유 중인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
-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선호 상품 및 실제 현황
- IRP 계좌 투자의 혜택 인지도
- 퇴직급여의 연금 전환 의사 및 희망 시기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인지도 및 선호 투자방식

은퇴 준비 위한 저축 방법

# 대부분 직장인의 은퇴 준비는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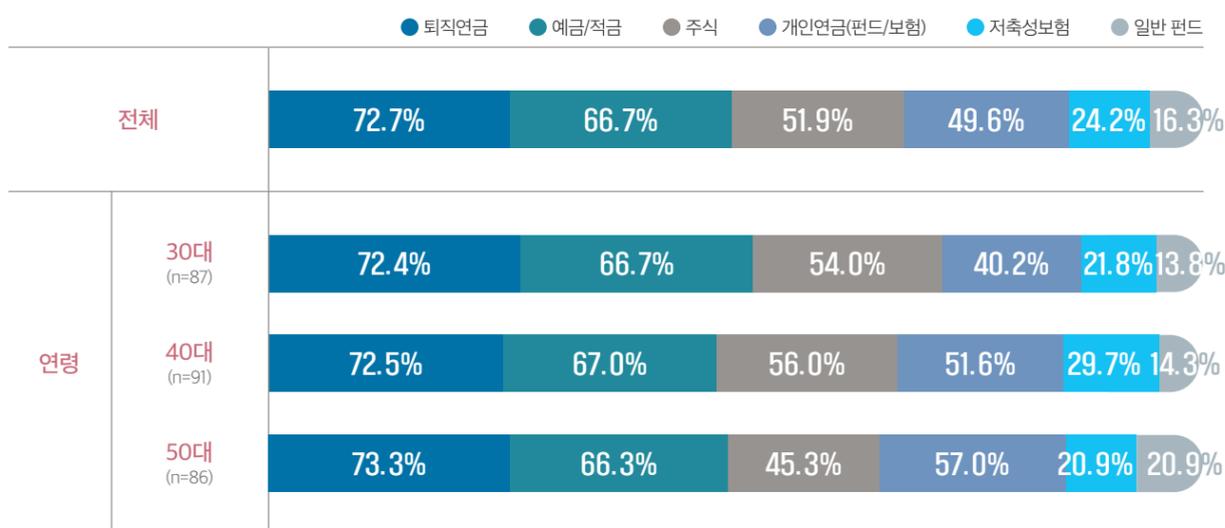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자신의 은퇴를 잘 준비하고 있을까? 이번 리서치 결과 대부분의 직장인 (76.7%)이 은퇴 준비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또 그러한 은퇴 준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축 상품은 바로 "퇴직연금"(72.7%)이었다. 그 다음 "예금/적금"(66.7%), "주식"(51.9%), "개인연금(펀드/보험)"(49.6%) 등의 순으로 전 연령층에 걸쳐 퇴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전체, n=300, %)



은퇴 준비를 위한 저축 방법

(은퇴 준비자, n=264, % / 중복 응답)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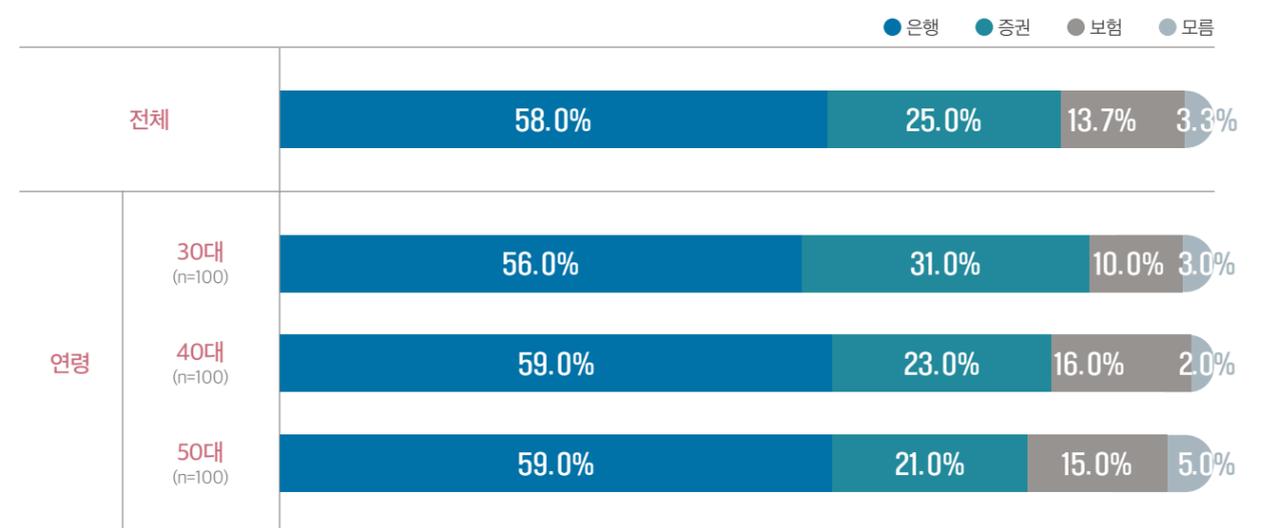
# 퇴직연금 운용회사 '은행'이 제일 많아

가입한 퇴직연금의 금융회사는 "은행"(58.0%)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 "증권"(25.0%), "보험"(13.7%)의 순이었다.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기관에서 운용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3.3%에 달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증권사 비중이 높았는데, 젊은 층일수록 퇴직연금 관리에 적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입한 금융회사

(전체, n=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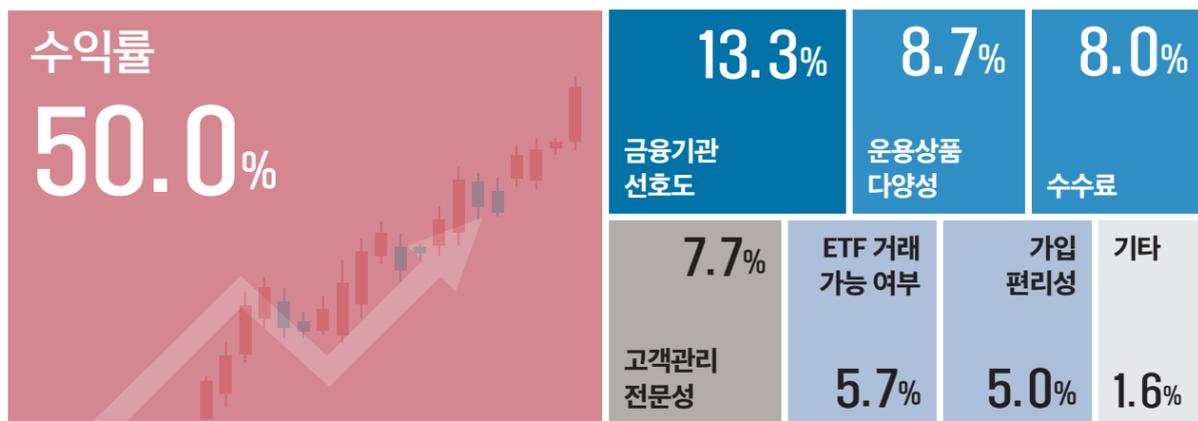
IRP 금융기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 금융기관 선택 시, '수익률' 제일 중시

IRP 금융기관 선택 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수익률”로, 전체 응답 중 50.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금융기관 선호도”(13.3%), “운용상품 다양성”(8.7%)이었다. 특히 2순위, 3순위 고려 요인의 비중과 1순위인 수익률 비중과는 격차가 커서 직장인들이 금융기관 선택 시 결정적인 기준은 수익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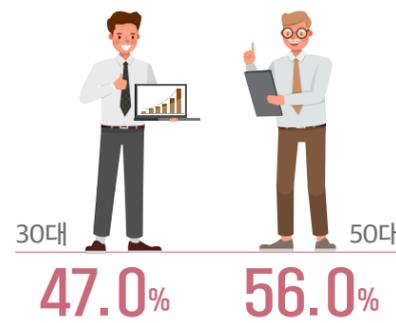
IRP 금융기관 선택 시 주요 기준

(전체, n=300, %)



	30대 (n=100)	40대 (n=100)	50대 (n=100)
수익률	47.0	47.0	56.0
금융기관 선호도	15.0	9.0	16.0
운용상품 다양성	10.0	9.0	7.0
수수료	12.0	6.0	6.0
고객관리 전문성	6.0	11.0	6.0
ETF 거래 가능 여부	5.0	9.0	3.0
가입 편리성	3.0	9.0	3.0
기타	2.0	0.0	3.0

금융기관 선택 시 수익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퇴직연금 가입기관 변경 경험 및 만족도

# 가입기관 변경 후 만족도 높아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가입기관을 변경한 적이 있는 경우는 '18.0%'로 높진 않았으나, 퇴직연금 가입기관을 변경한 후 만족한 비중은 '57.4%'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63.2%'가 만족한다고 답해서 다른 연령 대비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가입기관 변경 경험은 50대(20.0%)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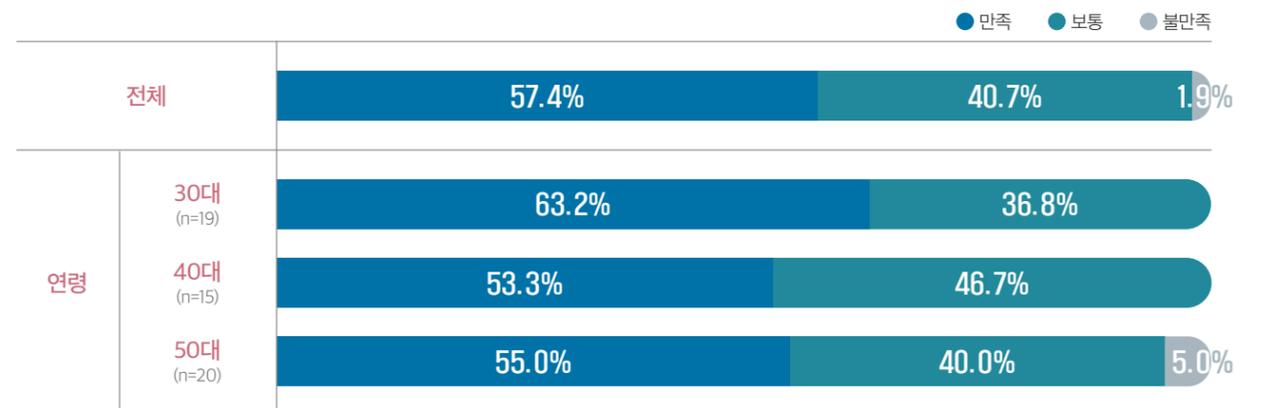
보유 퇴직연금의 가입기관 변경 경험

(전체, n=300, %)



가입기관 변경 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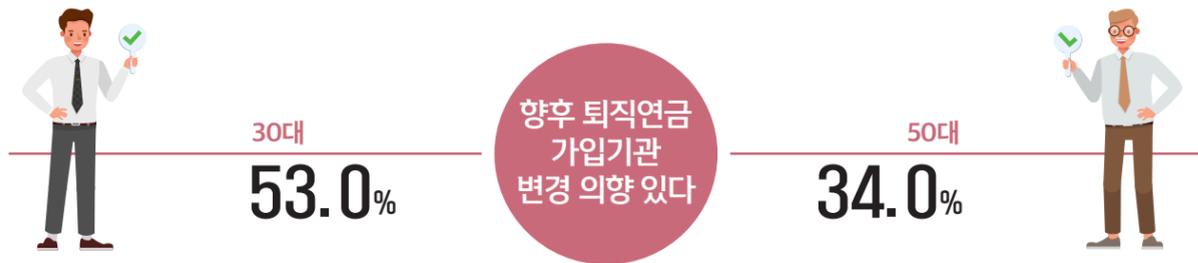
(가입기관 변경 고객, n=54, %)



퇴직연금 가입기관 변경 의향 및 이유

## 수익률 높다면 변경할 의향 많아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기관을 향후 변경할 의향이 “있다”는 대답이 44.0%, “없다”는 대답은 56.0%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기관 변경을 원하는 이유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어서”(72.7%),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서”(31.1%),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해서”(23.5%)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입기관 변경 이유 역시 수익률이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50대는 26.5%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좋다면 가입기관을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퇴직연금 가입기관 변경 의향

(전체, n=300, %)



가입기관 변경을 원하는 이유

(가입기관 변경 의향이 있는 고객, n=132, % / 중복 응답)

	전체 (n=132)	30대 (n=53)	40대 (n=45)	50대 (n=34)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어서	72.7	67.9	75.6	76.5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서	31.1	30.2	44.4	14.7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해서	23.5	34.0	20.0	11.8
ETF 투자가 가능해서	18.9	22.6	20.0	11.8
이벤트 혜택이 우수해서	15.2	18.9	15.6	8.8
고객관리센터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12.9	3.8	13.3	26.5
인지도가 높은 금융기관이어서	10.6	13.2	8.9	8.8
기타	1.6	1.9	0.0	2.9

보유 중인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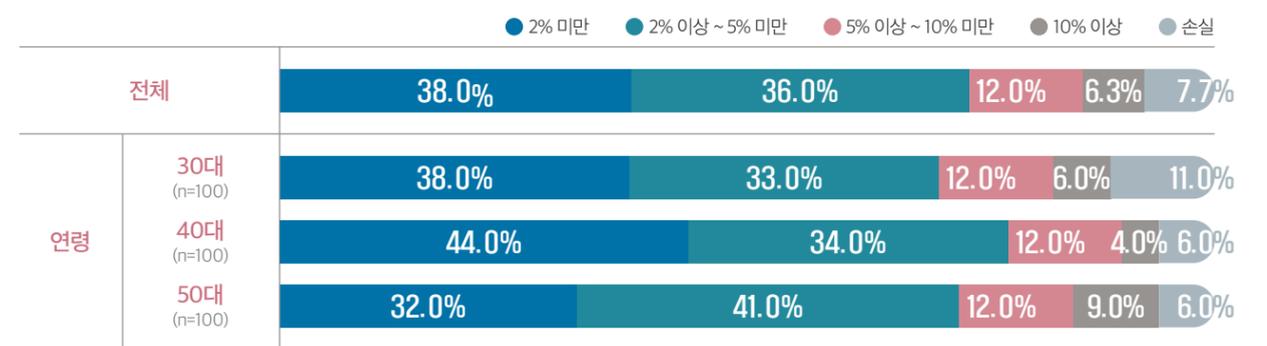
## 퇴직연금 수익률 대체로 저조

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조사 기간 기준)은 “2% 미만”(38.0%)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 손실을 보는 사람도 7.7%나 되었다.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퇴직연금 계좌를 원금보장형인 예·적금 중심으로 운영하는 투자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대 수익률은 “2% 이상 ~ 5% 미만”(30.3%)으로 답한 사람이 제일 많아,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그리 높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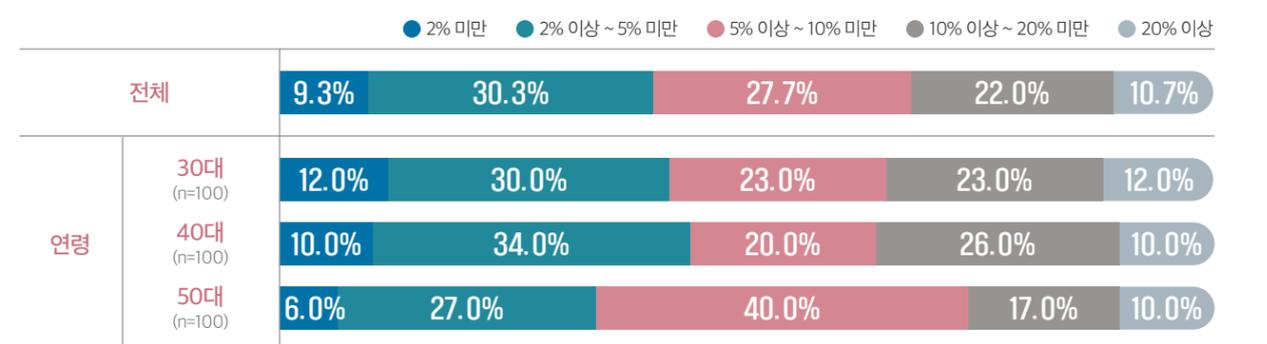
퇴직연금 현재 수익률

(전체, n=300, %)



퇴직연금 기대 수익률

(전체, n=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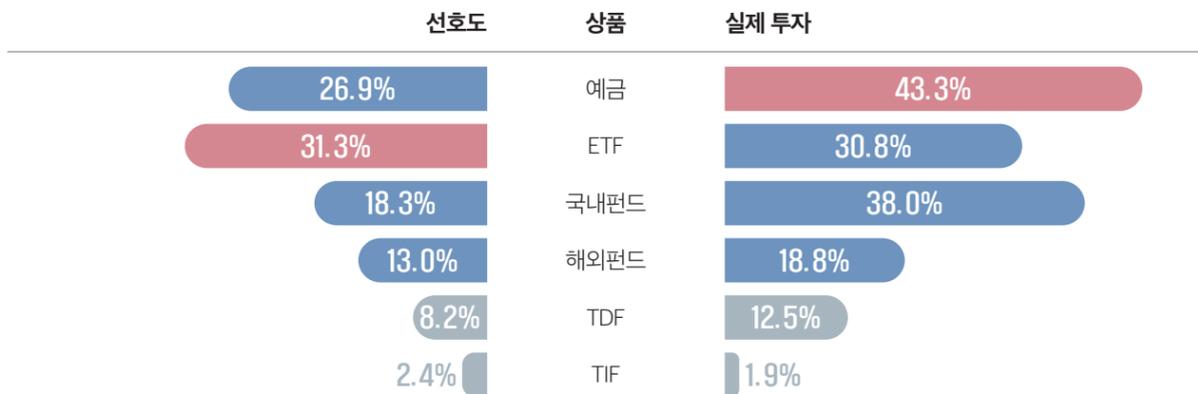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선호 상품 및 실제 현황

# ETF 최선호, 그러나 실제로는 예금 더 가입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성 시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ETF”(31.3%)이고, 그 다음 예금(26.9%), 국내펀드(18.3%), 해외펀드(13.0%)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예금”(43.3%)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국내펀드(38.0%), ETF(30.8%) 등의 순으로서, 선호도와 달리 실제 투자를 할 때는 원금보장형 상품인 예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호도 vs 실제 투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DC) 가입자, n=208, % / '실제 투자' 항목은 중복 응답)



선호도			상품	실제 투자		
30대 (n=77)	40대 (n=69)	50대 (n=62)		30대 (n=77)	40대 (n=69)	50대 (n=62)
36.4	26.1	16.1	예금	50.6	39.1	38.7
33.8	29.0	30.6	ETF	36.4	24.6	30.6
10.4	15.9	30.6	국내펀드	26.0	42.0	48.4
11.7	14.5	12.9	해외펀드	18.2	20.3	17.7
6.5	10.1	8.1	TDF (Target Date Fund)	9.1	17.4	11.3
1.3	4.3	1.6	TIF (Target Income Fund)	1.3	2.9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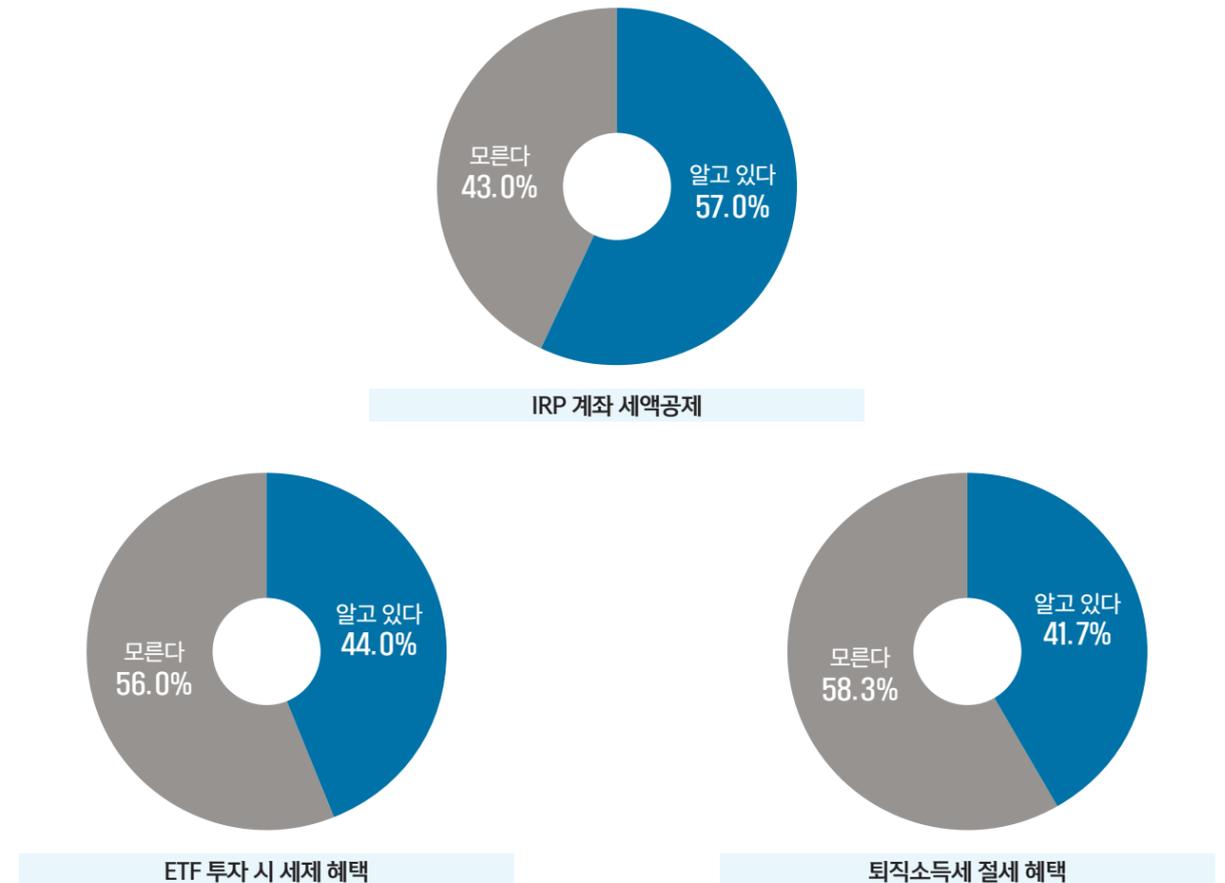
IRP 계좌 투자의 혜택 인지도

# IRP 계좌 혜택, 더 적극 홍보해야

직장인이 은퇴 준비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IRP 계좌. 그러나 IRP 계좌의 장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연말정산 시 IRP 계좌의 최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57.0%, 모르는 사람이 43.0%로 나타났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아직도 IRP 세액공제가 최대 700만 원(조건에 따라 만 50세 이상, 연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 IRP 계좌 내 ETF 투자 시 세제 혜택(매매차익 및 분배금 절세)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44.0%, “모른다” 56.0%였다. 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최대 40% 절세 혜택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41.7%, “모른다” 58.3%였다.

IRP 계좌의 혜택 인지도

(전체, n=300, %)



퇴직급여의 연금 전환 의사 및 희망 시기

## 퇴직급여, 65세 이후 연금 수령 선호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가,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 이에 대해 연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이 72.0%에 달했다. 연금 수령 시기로는 “65세 이상”(53.2%)이 가장 많았으며, “60세 ~ 64세”(37.0%), “55세 ~ 59세”(9.7%) 등의 순이었다. 개시 시기를 선택한 이유로는 “정년 시점이라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라서” 등의 답변이 많아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비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연금을 늦게 수령하길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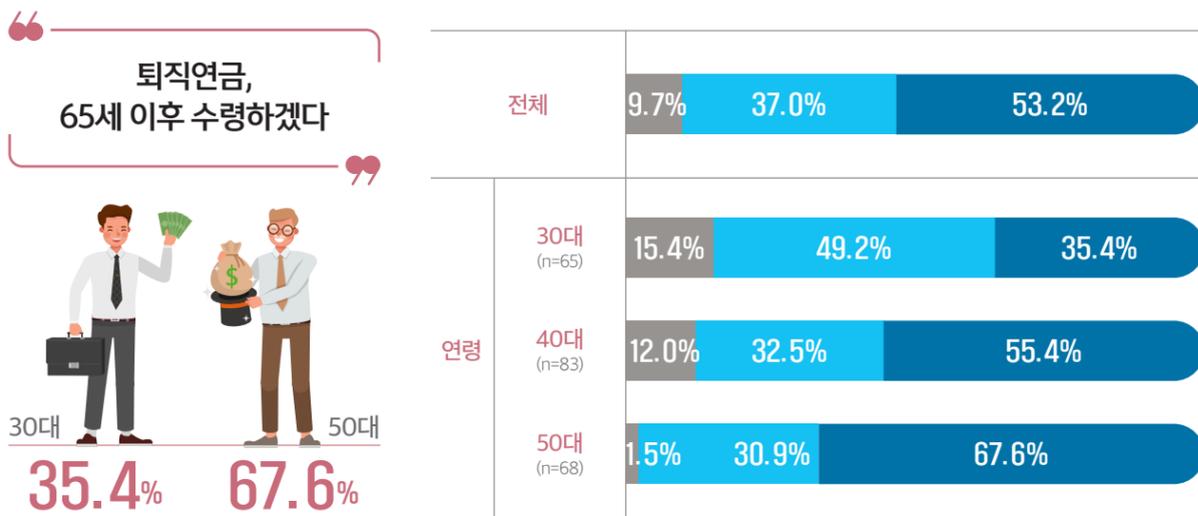
(전체, n=300, %)



퇴직연금 수령 희망 시기

(연금전환 의향자, n=216, %)

● 55세 ~ 59세 ● 60세 ~ 64세 ● 65세 이상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인지도 및 선호 투자방식

## 퇴직연금 투자 더 적극적 관리 필요

DC/IRP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것에 대해 “알고 있다”가 22.0%, “모른다” 78.0%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연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해서 보다 적극적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 시 원하는 상품 투자방식은 “적극투자형”(31.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추구형”(27.3%), “위험중립형”(22.7%)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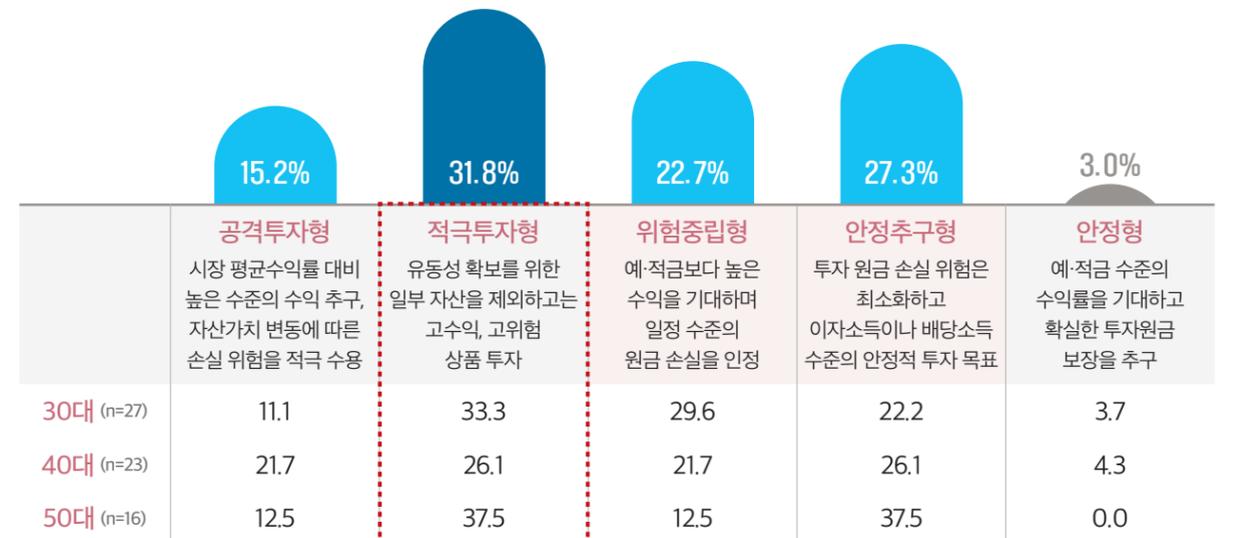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이란 DC/IRP에서 가입자의 명확한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지정한 상품 또는 포트폴리오에 맞게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전체, n=300, %)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 시 원하는 상품 투자방식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 예정 인지도, n=66, %)



# 당신의 은퇴, 안녕하십니까?

미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서는 '은퇴' 하면 자유, 즐거움 등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린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떨까? 자유롭고 여유로운 인생 2막의 이미지일까, 아니면 쓸쓸하고 곤궁한 인생 뒤편길의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는 어떤 모습인지 현실을 들여다본다.

## CONTENTS

- 희망하는 은퇴 연령 & 기대수명
- 은퇴 후 적정 생활비 & 노후자금
- 은퇴 후 소득 발생처
- 은퇴 후 재취업 희망 여부 및 이유
- 은퇴 후 가장 걱정되는 점
- 은퇴생활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환경 적절성
- 사회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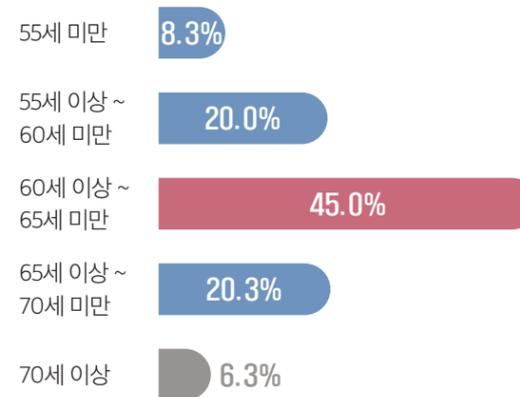
## 희망하는 은퇴 연령 & 기대수명

### 60세 넘어 은퇴, 90세까지 살 것

희망하는 은퇴 연령은 “60세 이상 ~ 65세 미만”(45.0%)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5세 이상 ~ 70세 미만”(20.3%), “55세 이상 ~ 60세 미만”(20.0%) 등의 순이었다. 특히 50대가 “65세 이상 ~ 70세 미만” 퇴직을 많이 희망하고, 40대는 “55세 이상 ~ 60세 미만” 퇴직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은퇴 후 기대수명은 “80세 이상 ~ 90세 미만”(56.0%)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기대수명이 길어져 30대에서 “90세 이상”(32.0%)이라는 대답이 많고, 50대는 18%에 불과했다.

#### 희망하는 은퇴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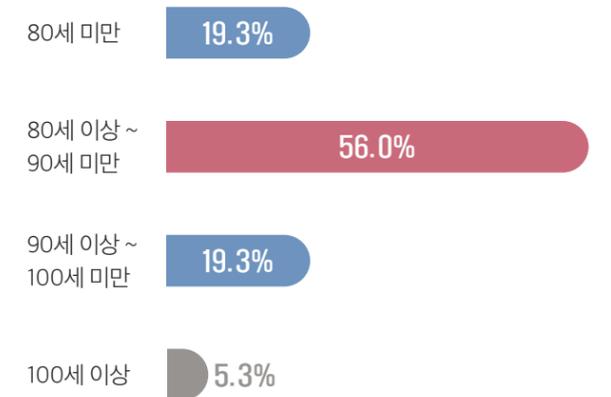
(전체, n=300, %)



	30대 (n=100)	40대 (n=100)	50대 (n=100)
55세 미만	16.0	7.0	2.0
55세 이상 ~ 60세 미만	19.0	26.0	15.0
60세 이상 ~ 65세 미만	42.0	43.0	50.0
65세 이상 ~ 70세 미만	14.0	19.0	28.0
70세 이상	9.0	5.0	5.0

#### 기대수명

(전체, n=300, %)



	30대 (n=100)	40대 (n=100)	50대 (n=100)
80세 미만	14.0	19.0	25.0
80세 이상 ~ 90세 미만	54.0	57.0	57.0
90세 이상 ~ 100세 미만	25.0	16.0	17.0
100세 이상	7.0	8.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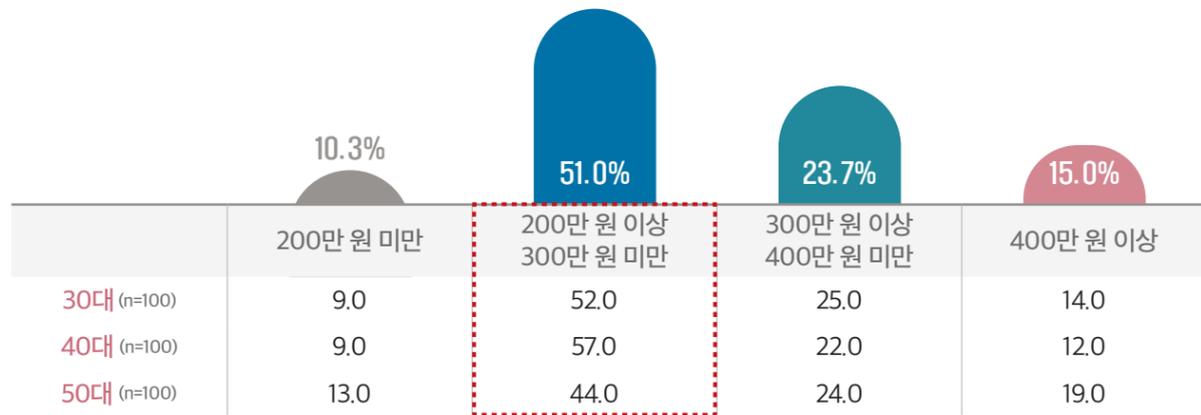
32.0% 18.0%

은퇴 후 적정 생활비 & 노후자금

# 월 200만 원 ~ 300만 원, 5억 원 이상 자금 필요

은퇴 후 매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 월 생활비가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5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23.7%) 등의 순이었다. 적정 노후자금으로는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36.7%)이 가장 많았고,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28.3%), “10억 원 이상”(28.0%) 등의 순이었다.

적정 생활비 (전체, n=300, %)



적정 노후자금 (전체, n=300, %)

“적정 노후자금은 5억 원 이상이다”

50대 **63.0%**

	전체 (n=300)	30대 (n=100)	40대 (n=100)	50대 (n=100)
3억 원 미만	7.0	10.0	6.0	5.0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28.3	24.0	29.0	32.0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6.7	40.0	31.0	<b>39.0</b>
10억 원 이상	28.0	26.0	34.0	<b>24.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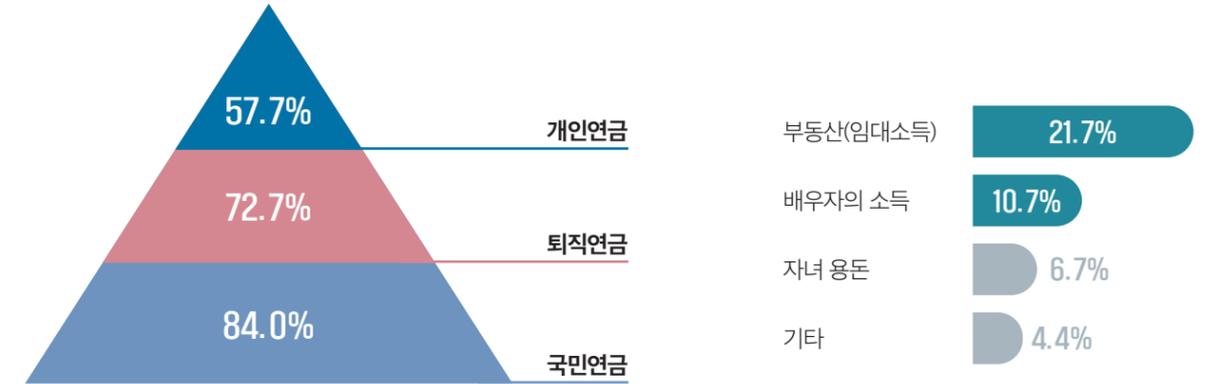
63.0%

은퇴 후 소득 발생처

# 은퇴 후 생활비, 3층연금으로 충당

은퇴 후 소득 발생처로는 대부분 사람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연금을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연금”(84.0%)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다음 “퇴직연금”(72.7%), “개인연금”(5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비로 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득 발생처 (전체, n=300, % / 중복 응답)



	30대 (n=100)	40대 (n=100)	50대 (n=100)
국민연금	<b>82.0</b>	<b>84.0</b>	<b>86.0</b>
퇴직연금	73.0	71.0	74.0
개인연금	56.0	57.0	60.0
부동산(임대소득)	23.0	27.0	15.0
배우자의 소득	11.0	12.0	9.0
자녀 용돈	8.0	3.0	9.0
기타	3.0	6.0	4.0

“은퇴 후 주된 소득 발생처는 국민연금이다”

50대 **86.0%**

은퇴 후 재취업 희망 여부 및 이유

## 은퇴 후에도 생계 위해 재취업 희망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반을 넘어, 재취업 희망 여부에 대해 “예”라고 답한 사람이 64.3%를 차지했고,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이 35.7%였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생계 유지”(57.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자아실현”(2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생계 유지를 위해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젊은 층의 은퇴 후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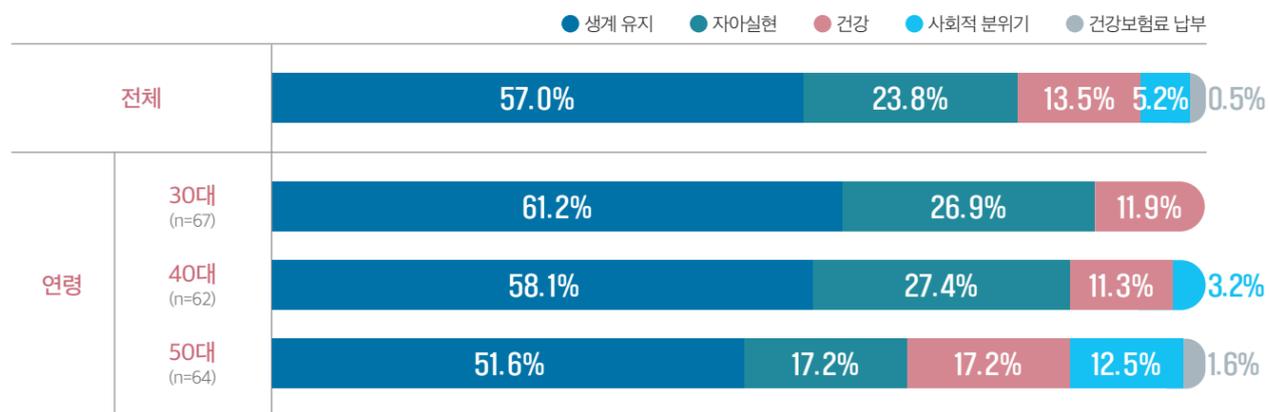
재취업 희망 여부

(전체, n=300, %)



재취업 희망 이유

(은퇴 후 재취업 희망자, n=19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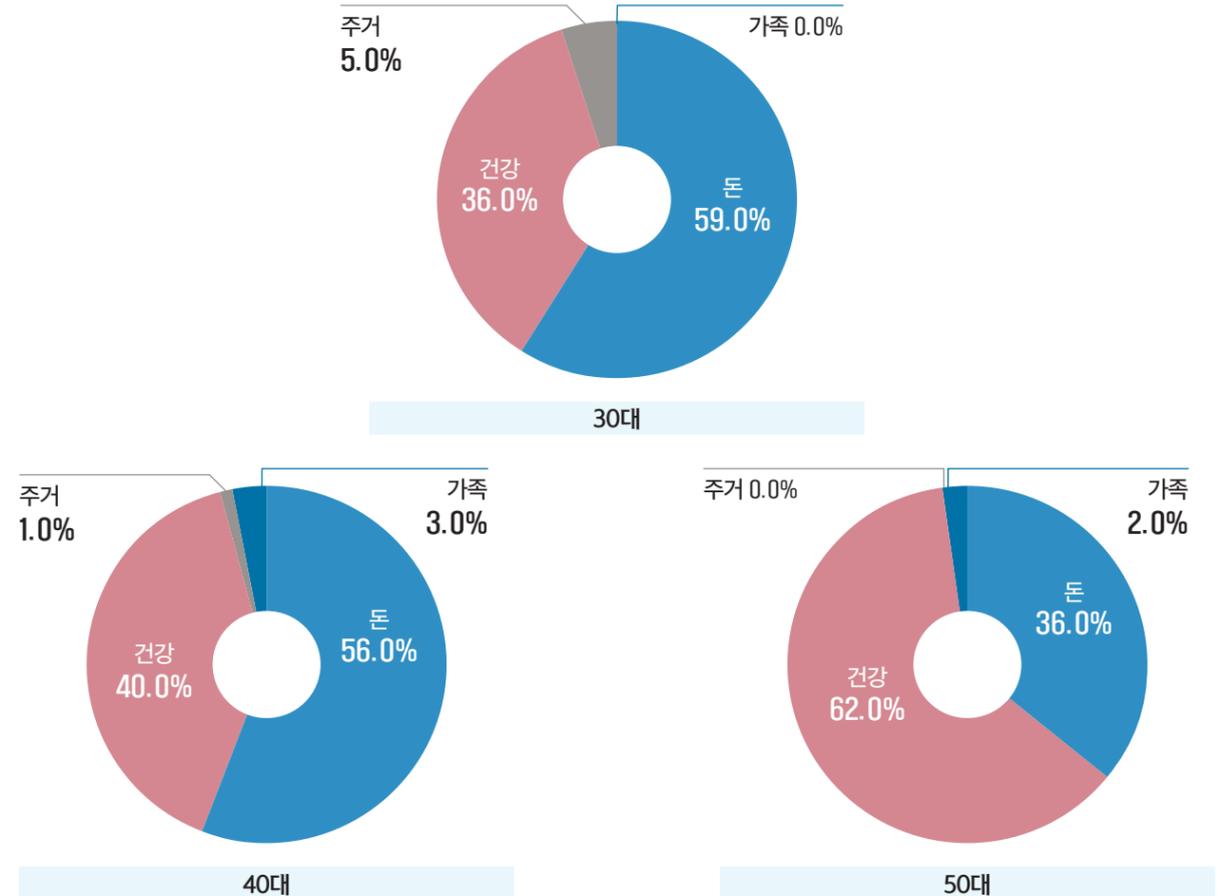
은퇴 후 가장 걱정되는 점

## 은퇴 후 ‘돈, 건강’ 걱정이 제일 커

직장인들은 은퇴 후 돈, 건강 문제 등을 가장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40대는 과반수 이상 “돈”이라고 응답해 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62.0%로 가장 컸다. 돈, 건강 외에도 주거, 가족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은퇴 후 가장 걱정되는 점

(전체, n=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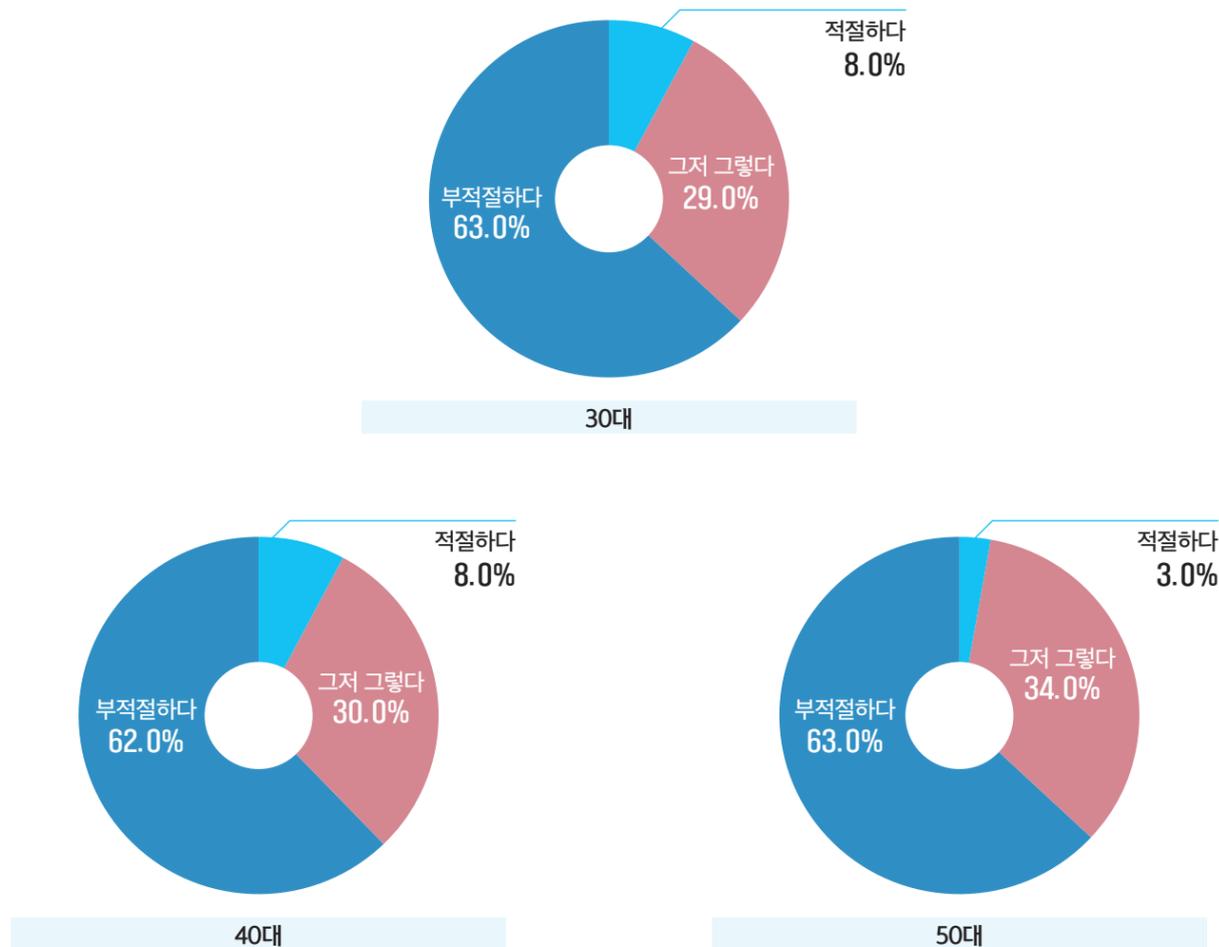
은퇴 생활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환경 적절성

# 대한민국, 은퇴자 살기엔 사회환경 안 좋아

우리 사회환경은 은퇴자들이 생활하기에 얼마나 적절할까? 대한민국 사회환경이 “적절하다”고 답한 직장인은 평균 6.3%에 불과했다. 특히 50대의 경우,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이 3.0%에 불과해, 타 연령에 비해 은퇴 사회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은퇴 생활에 대한 사회환경 적절성

(전체, n=300, %)



사회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부족’이 문제

대한민국의 사회환경이 은퇴자가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자리 부족”(30.3%)을 제일 많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14.4%), “물가상승률이 높다”(8.5%), “연금이 부족하다”(7.4%) 등의 순이었다. 특히 40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은퇴 환경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n=188, % / 중복응답 / 주관식)

	전체 (n=188)	30대 (n=63)	40대 (n=62)	50대 (n=63)
일자리가 부족하다	30.3	30.2	29.0	31.7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14.4	12.7	21.0	9.5
물가상승률이 높다	8.5	6.3	6.5	12.7
연금이 부족하다	7.4	6.3	4.8	11.1
생활자금이 부족하다	5.9	3.2	4.8	9.5
취업 후 급여가 적다	4.8	3.2	6.5	4.8
일자리가 한정적이다	4.3	4.8	3.2	4.8
은퇴자를 위한 복지가 부족하다	4.3	6.3	1.6	4.8
은퇴 시기가 너무 빠르다	3.7	4.8	4.8	1.6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3.2	1.6	6.5	1.6
소득이 불안정하다	3.2	1.6	6.5	1.6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다	3.2	0.0	3.2	6.3
노후자금이 부족하다	2.7	3.2	3.2	1.6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 노후가 불안정하다	2.7	0.0	6.5	1.6
사회적 환경이 좋지 않다	2.1	3.2	1.6	1.6
청년층 취업대책으로 인해 은퇴자가 소외되었다	2.1	0.0	3.2	3.2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은퇴자가 많지 않다	2.1	1.6	1.6	3.2

# 당신의 일상,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투자방식까지도 달라지고 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세상의 혁신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을 얼마나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을까?

## CONTENTS

-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트렌드
-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도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

###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트렌드

## 달라진 일상, 디지털 라이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을 '잠시 멈춤'으로 이끌었지만, 이제 엔데믹을 맞아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어 보인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기술 혁신의 트렌드 등 모든 것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정보를 얻는 채널, 물건 구매 방식, 여가를 보내는 방식, 환경보호 인식 등 모든 것이 달라졌다.



66

### 은퇴 정보는 주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얻는다

99

### 은퇴 정보를 얻는 곳

(전체, n=300, %)

유튜브, 카페, 블로그, 오픈 채팅,  
밴드, 금융기관 홈페이지·어플,  
온라인 검색

온라인을 이용한다

68.4%

금융기관 방문,  
가족 및 지인, 자산관리사 등

오프라인을 이용한다

31.6%



66

# 환경보호 트렌드, 모두가 나서고 있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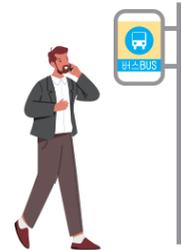
(전체, n=300, % / 중복 응답)

##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분리배출,  
재사용, 재활용 등

쓰레기 줄이기

75.7%



대중교통 이용

52.0%

66

# 필요한 물건은 주로 온라인에서 구매한다

99



(전체, n=300, %)

## 물건 구매 방식

오픈 마켓, 대형마트 쇼핑물,  
상품군별 쇼핑물,  
제조사 직영 쇼핑물 등

온라인에서 구매한다

73.7%

대형마트, 슈퍼마켓,  
백화점, 친환경 유기농 매장 등

오프라인에서 구매한다

26.3%

66

# 여가 시간은 주로 온라인으로 즐긴다

(전체, n=300, % / 중복 응답)

99



TV, 유튜브 등 시청

72.3%

국내 / 해외여행

48.7%



인터넷 활동  
(뉴스 검색, SNS 등)

45.3%

가족, 친구, 친척 등 지인과의 모임

40.0%

실외 운동  
(등산, 산책, 사이클링, 골프 등)

39.3%

독서 / 만화책 등 보기

37.0%

쇼핑

36.3%

실내 운동  
(헬스, 요가, 스쿼시, 수영 등)

32.3%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29.3%

게임  
(PC, 모바일 또는 콘솔게임 포함)

25.3%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도

# 지속가능경영, 젊을수록 관심 높아

최근 지속가능경영(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직장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잘 안다”고 답한 사람이 38.7%에 머물러, 여전히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단, 30대의 경우 52.0%로 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반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인지도가 떨어져 50대의 경우 30.0%에 불과했다.

\* 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이며, ESG경영이란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ESG에 대한 이해도 (전체, n=300, %)

		● 잘 안다	● 보통이다	● 모른다
전체		38.7%	29.3%	32.0%
연령	30대 (n=100)	52.0%	30.0%	18.0%
	40대 (n=100)	34.0%	28.0%	38.0%
	50대 (n=100)	30.0%	30.0%	40.0%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높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는 78.7%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30대의 인지도가 85.0%로 타 연령에 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반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다소 인지도가 낮아져 50대의 경우 73.0%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로봇, 전기차 등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로 인식하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 (전체, n=300, %)

		● 알고 있다	● 모른다
전체		78.7%	21.3%
연령	30대 (n=100)	85.0%	15.0%
	40대 (n=100)	78.0%	22.0%
	50대 (n=100)	73.0%	27.0%

## II

# 쏟드족의 진짜 은퇴생활, '쏟라이프'

'쏟라이프'를 위한  
10가지 조언



#. 은퇴 20년 차, 벌써 돈이 떨어지다니...

은퇴설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 은퇴 후에도 '평생 월급'이 있다고?

베이스 오브 베이스, 나의 연금을 점검하라  
퇴직급여,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퇴직연금 계좌, 어떻게 운영할까?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 은퇴 후 9회 말 인생,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고령화의 시간, 장기복리투자에 활용하라

#. 소중한 내 인생, 마무리도 스마트하게!

새로운 솔루션, 신탁에게 맡겨라  
소중한 재산, 상속과 증여로 이어가라

#. 은퇴한 다음날...

당장 필요한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활용하기  
세금, 건강보험 등 새는 돈을 막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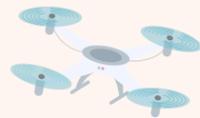
## #. 은퇴 20년차, 벌써 돈이 떨어지다니...

“당신을 ‘쓸라이프 타운’으로 초대합니다.”

어느 날 문득 발견한 이메일 한 통. 발신인은 ‘쓸라이프 미래설계연구소’로 되어 있었다. 쓸라이프 미래설계연구소는 세계적인 연구소로서 각국 지도자, 글로벌 기업 총수, 할리우드 배우, 종교 지도자 등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모두 그 연구소의 회원이라 알려져 있다. 그런 쓸라이프 미래설계연구소에서 왜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에게 초대장을 보낸단 말인가. 50대 중반의 은퇴예비자인 투자인은 믿기지가 않아서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이메일에 첨부된 초대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쓸라이프 타운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세계적인 박사들이 당신의 은퇴설계를 도와드립니다. 이것은 쓸라이프 미래설계연구소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류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회사업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플랫폼 입장까지 남은 시간은 30분. 그 안에 로그인을 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그 유명한 쓸라이프 미래설계연구소가 보낸 것이 맞을까? 참여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30분이 다 되어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가락은 초대장에 쓰여있는 로그인 정보를 입력해 버렸다.



팟! 화면이 바뀌더니 쓸라이프 미래설계연구소의 아름다운 안내자가 나오더니 물었다.

“어떤 아바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바타라고? 투자인은 여러 아바타 중에서 말끔한 훈남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 긴 복도를 걸었다. 창밖에는 하늘까지 높이 솟은 빌딩들과 그 사이를 날아다니는 드론, 공중에 떠 있는 정거장과 차들이 보였다. 미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창 밖 풍경이 사람들이 동경하는 ‘쓸라이프 타운’이라고 설명했다. 복도 끝에 이르자 두 개의 문이 나왔다. 과거로 가는 문, 미래로 가는 문!

“하나의 문을 선택하십시오.”

그가 ‘미래로 가는 문’을 선택하는 순간 그녀는 사라지고 문이 열렸다. 문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는데, 발을 들여놓자 갑자기 그의 몸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아악! 끝없이 추락할 것만 같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잡아준 것처럼 딱 멈췄다. 겨우 중심을 잡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2042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그램 영상이 떠올랐다. 은퇴한 지 20년이 된 그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의 집이었는데, 가구나 물건들이 초라해 보였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든 게 낡아버린 듯했다. 초라한 거실과 달리 창밖으로는 조금 전 보았던 화려한 쓸라이프 타운이 펼쳐졌다. 시름에 잠긴 아내가 말했다.

여보, 돈이 다 떨어졌어요.



“여보,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젠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나도 남들처럼 쓸라이프 타운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진작 당신도 국민연금에 들었더라면 국민연금 맞벌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국민연금만 가지고 쓸라이프 타운 티켓을 어떻게 구해요? 그보다는 당신 퇴직금이 남아 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이젠 살 만큼 살았는데 몇 년만 버텨시다.”

“몇 년이요? 아직 한참 남았다고요. 요즘 100세 전에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은퇴 20년 차. 아직 살 날이 수십 년 남았는데 돈이 떨어지다니.



아니 이럴 수가! 큰일이였다. 은퇴 20년 차. 아직 살 날이 수십 년 남았는데 돈이 떨어지다니. 그의 수명보다 돈의 수명이 먼저 끝이 나 버린 것이다.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 홀로그램 영상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난 쓸라이프 미래설계연구소의 은퇴설계 박사입니다. 당신은 10단계의 브랜치존을 지나게 됩니다. 모든 단계를 통과하면 이곳을 벗어나 쓸라이프 타운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브랜치존마다 최고의 전문가가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투자신 아바타는 첫 번째 박사를 따라 첫 번째 브랜치존으로 이동하여 은은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 01 은퇴설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국민연금 말고는 사적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일시금으로 받아 다 날려 버렸습니다. 꽤 많은 예금도 있었는데... 은퇴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당신은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더구나 모아둔 은퇴자금은 투자는 커녕 예금에 안일하게 두었다가 아들 결혼시킬 때 다 써 버렸으니 아무것도 안 남았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죠. 은퇴설계의 패러다임부터 바꾸십시오.



# 은퇴설계, 인생 후반전을 위한 작전타임

현역 생활은 30년, 은퇴 후 삶은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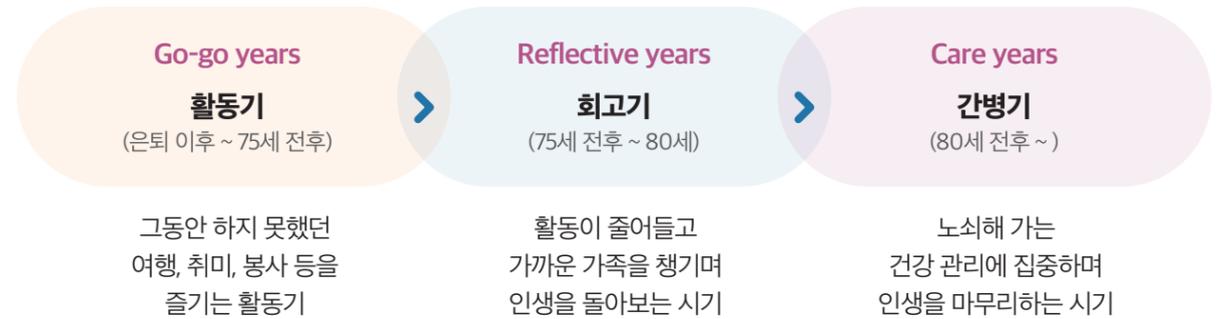
반세기에 달하는 은퇴 후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은퇴설계는 소중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작전타임이다.

‘은퇴’라 하면 생업에서 물러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의학의 발달로 은퇴 후 삶이 은퇴 전 삶보다 더 긴 세월이므로 ‘은퇴 후’야말로 삶의 중심이 되는 시간이다. 통계청의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3.4년, 60세 여자는 28.2년이다. 2020년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이것은 전년 대비 0.2세 증가하고, 10년 전 대비 3.2세 증가한 것이다. 더구나 사고나 질병으로 일찍 사망한 유아, 청소년 수까지도 포함된 평균이므로 실제로 성인의 수명은 이보다 훨씬 더 길 것이다. 또 수명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 100세 시대는 이미 서막이 올랐다. 이제 사람들은 약 20년 성장·교육을 거쳐, 30년 직장·사회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약 50년을 살게 된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은퇴란 이제 막 인생의 전반전이 끝난 시간일 뿐이다. 인생 후반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은퇴 후 삶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나 봉사, 여행 등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Go-go years(활동기)’, 체력 등을 이유로 활동이 줄고 소비도 축소되는 ‘Reflective years(회고기)’, 신체기능 저하로 외부 활동보다는 건강을 집중적으로 돌보는 ‘Care years(간병기)’ 등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간병기로 갈수록 생활비가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는 늘어난다.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은퇴설계를 해야 한다. 인생 후반전, 소중한 만큼 제대로 설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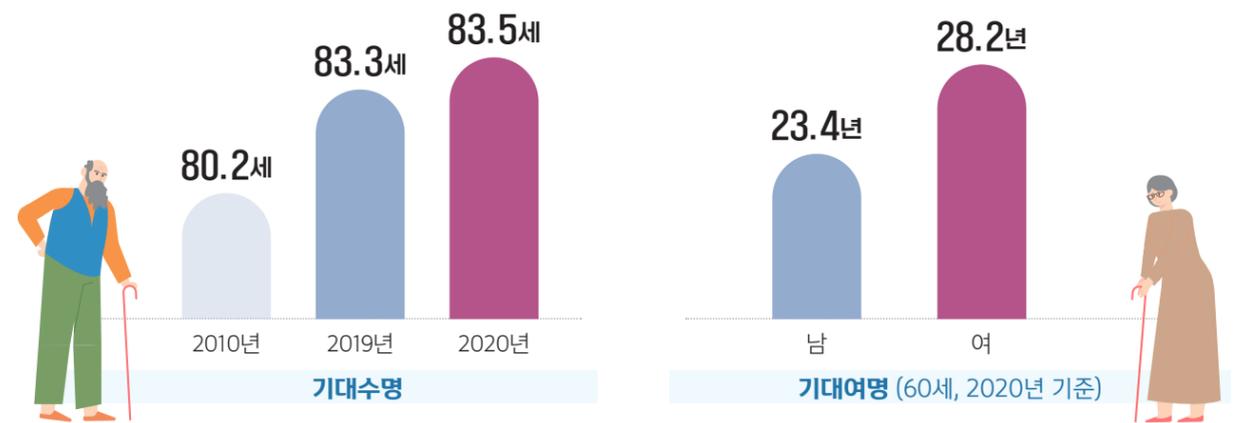
\* 기대여명: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출생아(0세)의 기대여명은 '기대수명'이라고 함

## 은퇴 후 라이프 사이클



※ 출처: 한화생명 은퇴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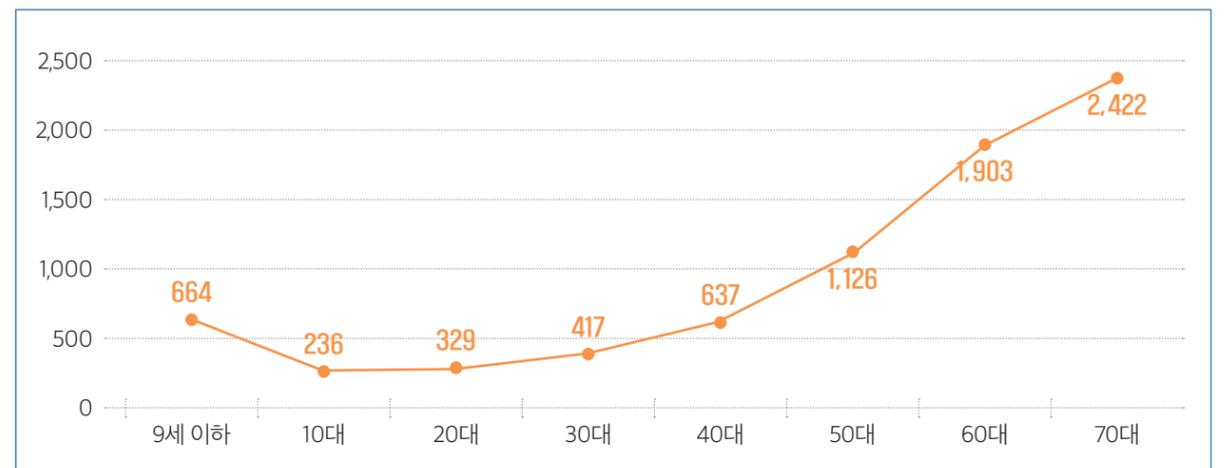
## 우리나라 남녀 수명



※ 출처: 통계청, <2020년 생명표>

## 연령대별 의료비

(단위: 만 원)



※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 자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거액의 자산을 축적하는 자산 중심 은퇴설계에서 매월의 소득을 만드는 '소득 중심'의 은퇴설계로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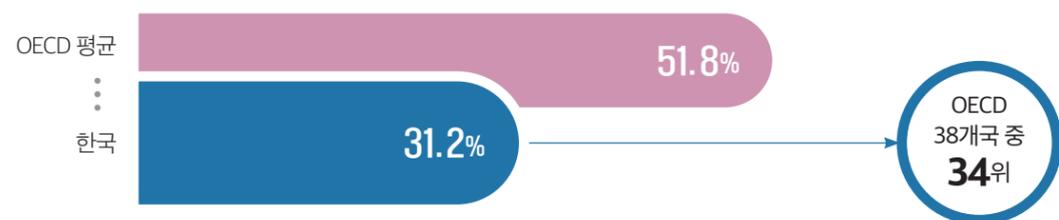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해 은퇴자금을 얼마나 모아야 할까? 10억 원이면 될까, 20억 원이면 될까? 10억 원이나 20억 원이나 실현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수명이 길어질수록 은퇴 후 필요한 자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 필요한 만큼의 돈을 다 모아서 은퇴한다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은퇴설계의 패러다임이 거액을 모으는 '자산 중심' 은퇴설계에서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소득 중심' 은퇴설계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소득 중심 은퇴설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금'이다. 미국에 유독 연금 부자가 많은 것은 일명 '401K'라는 사적 연금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하여 국민 개개인이 소득 중심 은퇴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결과이다. 일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 할 수 있는 401K를 통해 세제 혜택을 주고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면, 개인이 직접 투자상품을 골라 운영하면서 평생 소득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7년 기준 미국의 부부 모두 은퇴한 완전은퇴 가구의 소득 중 약 70%가 퇴직연금 등 연금에서 나온다(출처: LIMRA, US Census Bureau). "은퇴할 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은퇴 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로버트 머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의 말처럼, 은퇴 준비는 자산이 아니라 소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2020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출처 : OECD 보고서, <2021 한눈에 보는 연금, Pensions at a Glance 2021>



(보험료율 : OECD 평균 18.2, 한국 9.0)

## 저축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 은퇴 후에도 투자를 계속하라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만 치중하다 보면,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먼저 떨어지는 '무전장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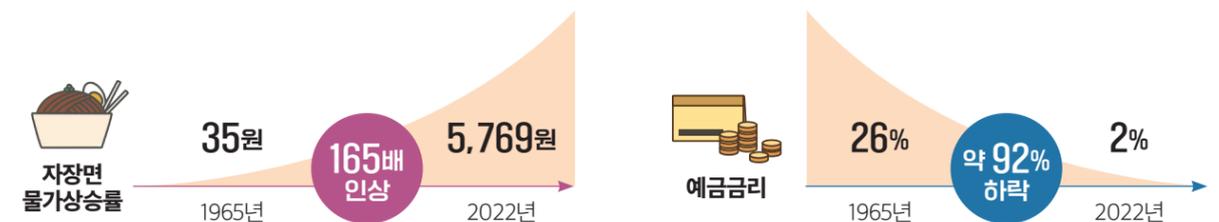
은퇴 전까지 마련한 돈을 야금야금 꽃감 빼먹듯이 한다면 어느새 동이 나버린다. 또 은퇴 후에도 자녀 결혼, 질병 등 목돈 들어가는 일이 많은 데다 오래 살수록 필요한 자금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적극적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은퇴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금을 선호하지만,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예금, 채권 등 약간의 이자만 받을 뿐 금액이 변하지 않는 자산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때문이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65년 35원이던 자장면이 2022년에는 5,769원이 되었다. 약 165배가 된 것이다. 반면 예금금리는 1965년 약 26%, 1980년 약 19%, 1998년 약 14%, 2022년 약 2%로 계속 낮아졌다. 최근 금리가 다소 인상되긴 했지만 높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여전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이다.

따라서 은퇴자산을 무조건 안전하게만 운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운영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나치게 안전만 추구하다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이 쌓이다 보면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돈이 떨어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축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은퇴자금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 안전자산은 안전할까?

※ 출처 : 통계청



## #. 은퇴 후에도 '평생 월급'이 있다고?

첫 번째 브랜치존은 현실자각타임의 기회가 되었다. 투자신은 그동안 자신이 은퇴 후 삶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를 돌아보았다. 그런 그에게 박사1은 작별 인사를 하며 무언가를 내밀었다.

“자 받으십시오. 가상재화 ‘토큰’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토큰으로 뭐든지 살 수 있으니 잘 챙겨두십시오. 이제 두 번째 브랜치존으로 이동하십시오.”

박사1이 가리킨 쪽을 바라보자 LED 광선로드가 뻗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로드는 점차 계단이 되었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두 번째 브랜치존이 나타났다. 사하라사막이었다. 휘몰아치는 모래 먼지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저는 2번 브랜치존을 담당하는 박사입니다. 당신은 먼 사막길을 가야 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물건이 들어 있는 비밀 상자가 두 개 있는데, 어떤 것을 사겠습니까?”

두 번째 브랜치존의 박사2가 내민 상자는 007 가방처럼 생겼는데,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게 한눈에 보기에 진귀한 물건이 많이 들어 있는 듯했다. 또 다른 상자는 호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투자신은 당연히 금빛 나는 007 가방을 선택했다. 가만히 보니 또 한 사람이 모래먼지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작고 초라한 박스를 선택했다. 두 사람이 저마다 토큰의 바코드를 박사의 손목 위치에 갖다대자 상자의 대금이 결제되었고 드디어 사막 횡단이 시작되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상자를 열어보십시오.”

그 말만을 남기고 박사2는 사라졌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벌써 투자신을 괴롭혔다. 얼마 못 가 상자를 열어보니 열린 생수병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탁월한 선택을 대견해 했다. 힐끗 보니 동행하는 그녀의 상자에서는 작은 물병 하나가 나왔고 몇 번 마시지 못해서 동이 나 버렸다. 그에게는 여전히 생수병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갈 길이 멀었다. 도대체 사막의 끝은 어디인지... 일주일도 지나도록 사막은 끝날 줄을 몰랐다. 태양 아래 투자신은 또 상자를 열었다. 앗! 빈 생수병뿐이었다. 물을 마시지 못하니 갈증으로 온몸이 타들어갔다. 아니 그런데! 그녀가 작은 물병을 꺼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닌가. 투자신은 충격에 휩싸였다. 저 작은 병에서 어떻게 물이 계속 나온단 말인가! 그는 소리쳤다.

“당신의 물병은 왜 마르지 않는 겁니까? 내게도 물 한 모금만 주세요. 제발!”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외치며 앞서서 뛰어가 버렸다.

“미안해요. 각자 자기 물만 마실 수 있습니다.”

지친 나머지 의식마저 희미해지는데, 모래 먼지 사이로 박사2가 다시 나타났다.

“당신은 먼 길을 떠나면서 너무 큰 물병을 선택했죠. 그러나 먼 길을 떠날 때는 큰 물병보다는 마르지 않는 물병이 필요한 법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은퇴설계를 해준다더니 무슨 물병 타령입니까?”

은퇴 후 삶은 긴 여정이죠.  
그러니 큰 자산을 준비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퍼서 쓸 수 있는 '평생 월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 02

## 베이스 오브 베이스, 나의 연금을 점검하라



아니, 은퇴한 후에 무슨 월급이 있다는 겁니까? 계속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매월 소득이 생기도록 은퇴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우선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다른 사적연금에서는 얼마나 연금이 나올지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사적연금도 친구 권유로 들어둔 게 있는데 잊고 살았네요.

**은퇴설계는 자기진단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연금을 점검하고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세요. 자산 현황도 점검하여 은퇴자산으로 쓸 수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 자신의 자산 현황을 냉정하게 진단하라

### 은퇴설계의 출발은 자산 현황 파악부터

자신의 자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은퇴설계를 해야 한다.

은퇴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자산 현황을 냉정하게 진단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자기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간단치만은 않다. 일일이 발품을 팔아 금융사를 다니며 문의해볼 수도 있겠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서 일차적인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좋다.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을 이용하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산 현황을 파악했다면 이를 기초로 자신의 '자산현황표'를 작성해 보자.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처럼 부부가 함께 자산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특히 부채를 제외하고 순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자산 중에서 은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해 봐야 한다. 자산이 모두 은퇴자산이 되는 게 아니다. 현금이 있어도 자녀 결혼자금으로 쓸 돈이거나, 집이 있어도 상속을 해야 한다면 은퇴자산으로 쓸 수 없다. 자산 중 어떤 것을 은퇴자산으로 활용하여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지 설계해 본다.

### 부부가 함께 자산현황표 만들기 (예시)

※ 출처 : 금융감독원, <파랏파랏 자산관리>

자산		부채	
항목	금액	항목	금액
<b>현금성 자산</b>		<b>단기부채</b>	
급여통장(잔액)		마이너스통장	
보통예금		신용카드 할부잔액	
...		신용대출(1년 미만)	
<b>안전자산</b>		<b>장기부채</b>	
정기예금		주택담보대출	
저축성보험(현재 해지환급금 기준)		자동차 할부잔액	
...		신용대출(1년 이상)	
<b>투자자산</b>			
펀드(현재 평가액)			
주식(현재 평가액)			
...			
<b>부동산 등</b>			
거주주택(거래가격)			
자동차(시가평가액)			
...			
<b>기타자산</b>		<b>기타</b>	

# 잊고 있던 연금계좌를 확인하라

## 나의 연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입만 해 놓고 잊고 지내던 연금계좌들을 확인해 보자.  
노후 생활비를 연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본다.

은퇴설계의 가장 기본은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활용한 연금설계다. 연금 설계는 일찍 시작할수록 스노우볼 효과(snowball effect)로 연금액이 늘어난다. 특히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유일한 연금인 데다, 일찍 납부를 시작해서 오랫동안 납부하다가 늦게 수령할수록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의 연금 준비는 잘 되어 있을까? 매월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정작 은퇴 후에 받을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수령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하고도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연금을 점검해 보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나 '전자민원>개인서비스>조회' 등을 통해 자신의 보험료 납부내역, (예상)연금액 등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국민연금부터 사적연금까지 내가 가입한 연금 정보를 망라해서 보여준다. 다만 <통합연금포털>은 보험사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연금을 점검해 보십시오.



### 은퇴 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2020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 국민연금, 두 배로 활용하기

### ✓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생활비를 대기도 힘들다면 '납부 예외'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 납부기간 늘리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수령액 높여

60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면 연금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다.

### ✓ 연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조기수령'

국민연금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수령'으로 연금 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단 1년 앞당길 때마다 수령액이 연 6%씩 줄어 5년을 앞당기면 30% 감소한다.

### ✓ '연기연금'으로 늦추면 수령액은 늘어나

조기수령과 반대로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도 가능하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데, 연기하는 1개월마다 수령액이 0.6%, 1년이면 7.2%씩 늘어난다. 딱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 일시금으로 받은 게 있다면 '반납'

과거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자와 함께 다시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살릴 수 있는 제도이다. 반납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직전까지 가능하다(2022년 현재 만 62세).

### ✓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추가납부'로 복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가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



# 03

## 퇴직급여,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지금 퇴직급여라도 남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십 번 생각합니다.  
정말 퇴직급여는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 겁니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상당히  
**큰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세금이 감면된다는 거죠?

**퇴직소득세가  
최대 30~40% 감면이 됩니다.**  
더구나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니  
과세이연이 되고 또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계좌를 운용해서 불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퇴직급여,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나의 퇴직급여 유형과 금액을 확인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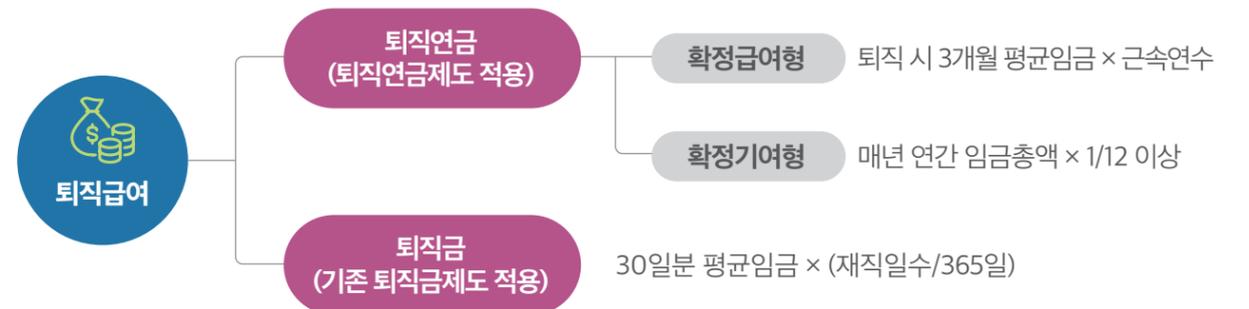
자신의 퇴직급여가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퇴직금인지  
그리고 내가 받을 퇴직급여는 얼마인지 등을 알아둔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은퇴 후 비빌 언덕이 되어 주는 것이 '퇴직급여'다. 과거에는 일시금으로 받는 게 관행이었지만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인 경우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한 경우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이 있는데, 회사가 어떤 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내가 받는 퇴직급여액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얼마일까?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 시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의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 × 1/12 이상'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단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매달 회사에서 넣어준 퇴직급여를 투자·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운용수익 및 손실을 가감한 금액을 받는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는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일)'에 해당한다. 나의 퇴직급여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퇴직급여 계산기)에서 모의 계산해 보거나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기관의 어플로 확인이 가능하다.

### 퇴직급여 얼마나 받나?



#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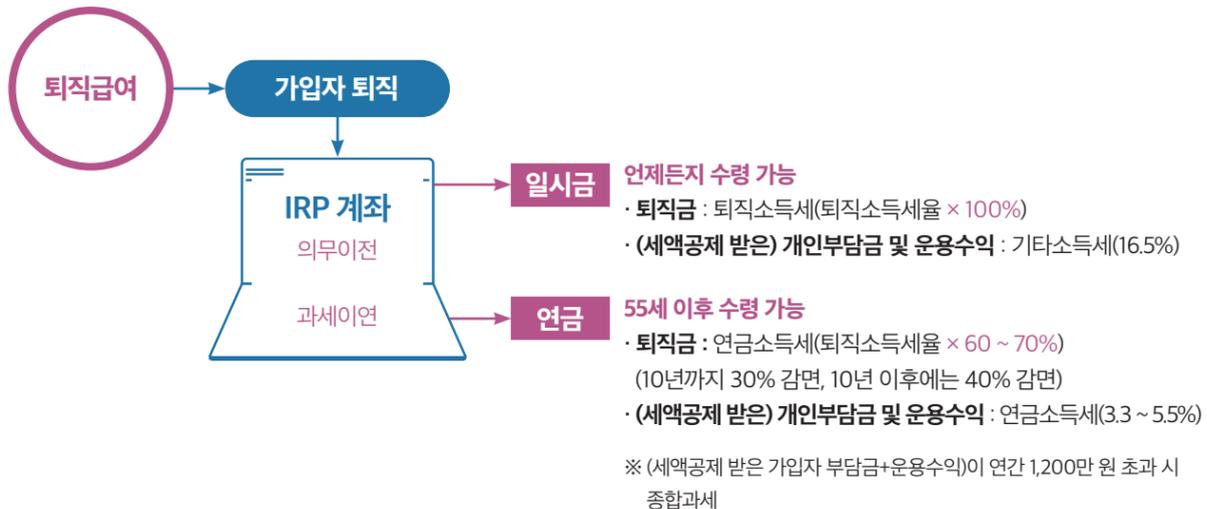
## 놓치지 가까운 세제 혜택을 확인하라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운용수익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 등의 혜택이 있다.

좁처럼 목돈을 만져보기 힘든 보통 사람의 경우 퇴직급여야말로 목돈을 손에 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연로한 부모님 의료비나 자녀들 결혼 비용 등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 써버려도 될까?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면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자.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회사도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IRP 계좌를 통해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IRP 계좌로 지급된 퇴직급여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단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율 100%'를 적용하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된다. 즉 연금으로 수령할 시 퇴직소득세를 30~40%나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IRP 계좌는 재직 시엔 세액공제를 받는 데 유용하고, 연금 수령 시엔 퇴직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 등 혜택이 많은 상품이므로 적극 활용해 보자.

### ● 퇴직급여 어떻게 받아?



# 04 퇴직연금 계좌, 어떻게 운영할까?



**IRP 계좌에 있는 돈을 굴리라고요?**  
IRP 계좌가  
주식 계좌도 아닌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IRP 계좌는 최고의 투자 플랫폼이지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릴 수도 있으니까요.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해서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연금인 만큼 IRP 계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다니...  
이제 와서 후회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은퇴 후에도  
IRP 계좌에서 투자를 이어가면서 계속  
돈을 불릴 수 있으니까요.

## 나의 퇴직금을 일하게 하라

### 퇴직연금 받는 동안에도 돈이 불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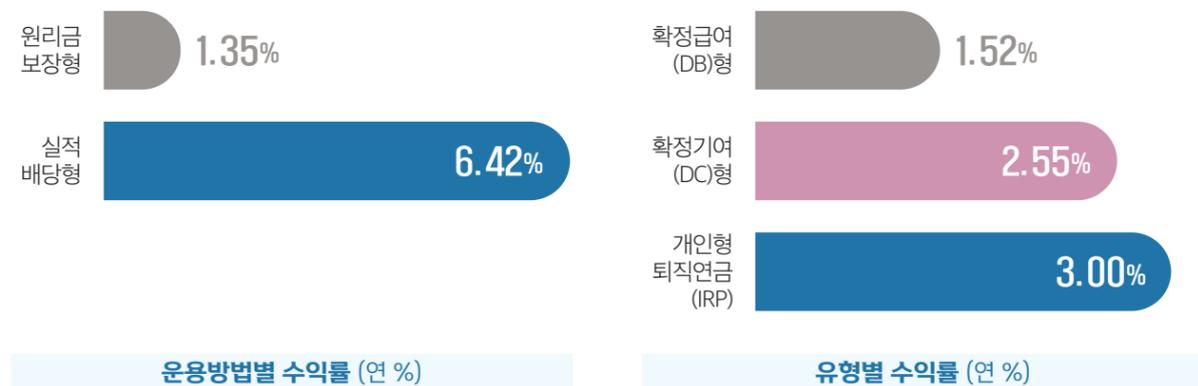
IRP 계좌에 쌓이는 퇴직급여를 종자돈으로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튼튼한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IRP 계좌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확정급여형(DB)과 달리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회사가 매달 넣어주는 적립금을 투자·운용할 수 있다. 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 후에도 연금을 수령하면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특히 2022년 IRP를 통한 퇴직금 수령 의무화제도와 함께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시행 예정이므로, IRP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로만 DC/IRP에서 가입자의 명확한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지정한 상품 또는 포트폴리오에 맞게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투자에 대한 관심이 적고 원금보장형만을 선호하다 보니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대 수준에 불과하다(출처: 금융소비자연맹, 퇴직연금 수익률 수수료 비교 및 소비자인식 실태조사). 그러나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하고 투자형 연금제도인 401k를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연 8% 수준이다. 미국 '피델리티자산운용' 등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기준 100만 달러(한화 약 12억 원) 이상 연금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26만여 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퇴직연금 계좌의 돈을 계속 일하게 한 결과이다.

● 퇴직연금 운용방법별·유형별 수익률(2021년 기준)

※ 출처: 금융감독원 등



## 연금계좌를 주식계좌처럼 운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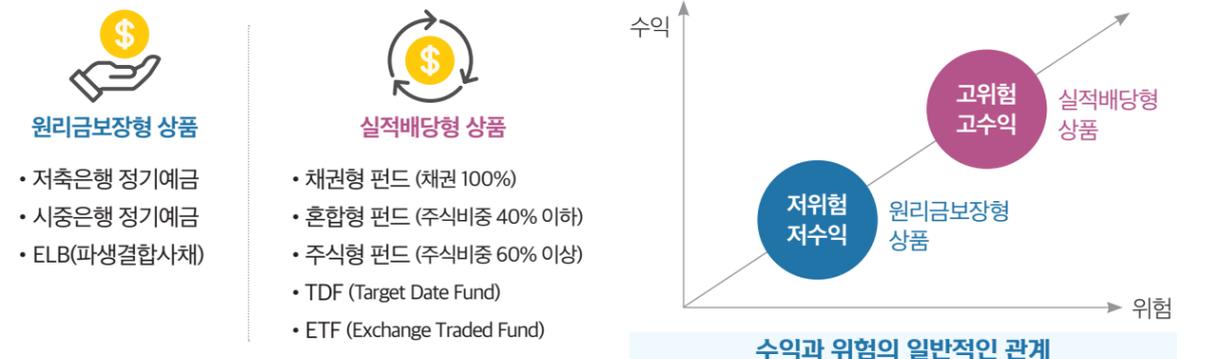
### IRP는 최고의 투자 플랫폼이다

IRP는 스스로 돈을 굴릴 수 있는 계좌이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주식계좌처럼 '투자의 플랫폼'으로 활용해 보자.

IRP 계좌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까? IRP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은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형', 매칭형 펀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과 같은 '실적배당형'이 있다. 다만 계속되는 저금리 및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수익을 내는 데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적배당형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변동성이 있더라도 꾸준히 적립한다면 은퇴 후 정기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 IRP는 '연금'을 주된 목적으로 한 계좌이므로 주식형 펀드, ETF와 같은 위험성 자산에는 70%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TDF,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채권형 ETF 등은 경우에 따라 100% 투자가 가능하다. IRP뿐만 아니라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한데, 펀드 상품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IRP 계좌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다.

투자상품을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면 생애주기펀드(TDF), 혼합형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가입이 늘어나 퇴직연금 수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IRP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품



수익과 위험의 일반적인 관계

☆ IRP 대안 실적 배당형 상품

☑ TDF

만약 투자에 관해 잘 모른다면 TDF로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TDF(Target Date Fund)'란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target date)으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산배분 펀드이다. 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이 줄고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이 늘어나도록 리밸런싱 된다. 예를 들어 신한자산운용사의 '마음편한TDF 2050'은 운용 초기에는 주식 비중이 80%나 되지만 은퇴 시점에는 주식 비중이 20% 수준까지 줄어든다. 이러한 TDF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서 선택 대상 중 하나로써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

☑ TIF

TDF가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한 상품이라면 TIF는 노후자금을 잘 꺼내쓰기 위한 상품이다. 목돈 투자와 인출에 특화된 '타깃인컴펀드(Target Income Fund)'는 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생긴 이자·배당 수익으로 매년 원금의 3~4%가량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정 소득이 있는 기간엔 은퇴 시점에 맞춰 자금을 불려주는 TDF를 이용하다가 고정 소득이 없어지면 TIF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ETF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는 특정 지수 및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어 있는 상품이다. 인덱스 펀드에 주식의 장점이 더해진 것으로, 매수·환매에 시간이 소요되는 펀드와 달리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더구나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경우 세제 혜택도 많다. 일반계좌에서 ETF 거래를 하는 경우 분배금 또는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가 발생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그런 세금 부담이 없다. 단, 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상품만 가능하고 해외상장 ETF 투자는 불가능하다. 대신 국내 상장이면서 해외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해외상장 ETF 거래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22% 대신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표적인 '국내 상장 해외 ETF'로는 미국의 500개 우량주에 투자하는 '미국 S&P500', 나스닥의 대표주 100개에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100' 등이 있다.

05 [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

월 생활비도 마련해야 하고 자산도 불려야 하고...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은퇴자산 관리는 투트랙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투자·운용을 통해 노후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자산과 투자자산으로 배분해서 관리**하는 것을 상품간 배분(product allocation)이라고 하죠.

우선 생활비가 문제인데... 연금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할 거 같아요. 연금 외에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월 돈이 나오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주 주식이나 부동산 리츠, 월배당 ETF 등도 좋습니다.



## 현금자산을 연금화하라

### 가입 즉시 연금으로 받는 '즉시연금'

연금 준비가 충분치 않고 현금자산만 있다면 목돈을 예치하고 즉시 연금으로 수령하는 '즉시연금' 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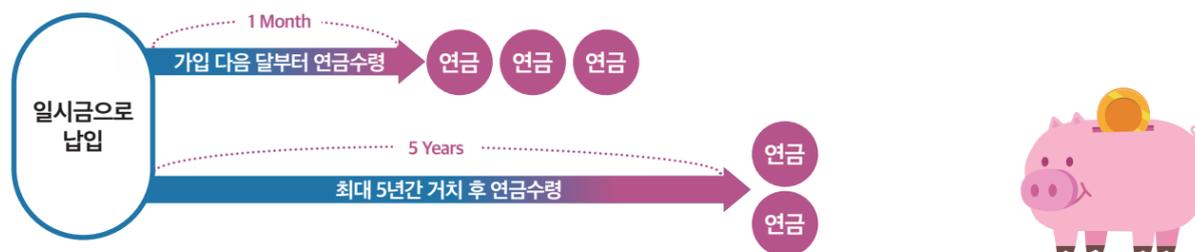
연금은 젊은 시절부터 오랜 세월이 걸쳐 준비하는 것이기에 은퇴에 임박해서 갑자기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연금 준비가 충분치 않은 은퇴자의 경우 현금자산이 있다면 그것을 연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즉시연금(일시납연금)'이다.

즉시연금은 한 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1달 뒤부터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금융상품으로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하다. 보통 목돈 예치 후 즉시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연금 수령 이전까지 거치기간을 둘 수도 있다.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월 나누어 받는 '종신형', 10년, 20년 등 약정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받는 '확정기간형',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받다 사망 후 상속인에게 원금을 지급하는 '상속형'이 있다.

#### 즉시연금

개요	연금 수령	특징
목돈을 예치하고 바로 연금으로 수령	종신형, 확정기간형, 상속형	1. 연 단위 복리식 이자 지급 2. 안정적인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적용 3.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연금 선택 가능 4. 이자소득(연금소득)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비과세 요건 부합 시)

#### 즉시연금 구조



※ 가입 즉시 연금으로 받거나 필요한 경우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 보유 주택을 연금화하라

### 내 집에 살면서 연금도 받는 '주택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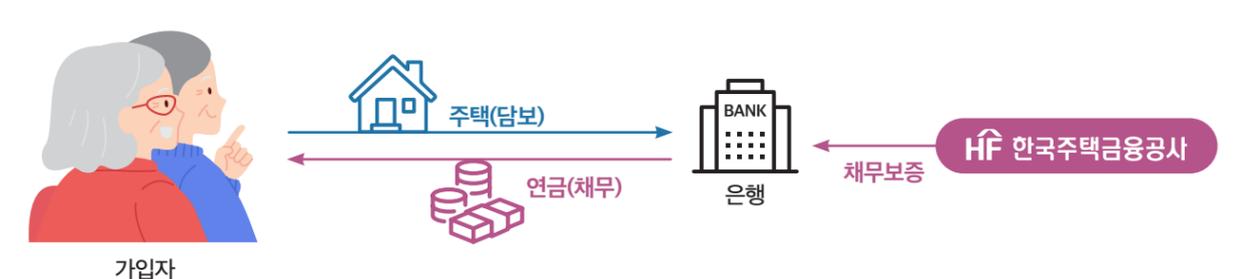
연금도 부족하고 목돈도 없다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자.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집만 있으면 손쉽게 연금화하여 평생 자기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하는 등 가입조건이 있다. 처음 가입 시 주택금액에 따라 월 지급금이 결정되면 이후 집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변동 없이 같은 금액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 그 상승분을 연금 수령액에 반영할 수 없는데, 다만 이런 경우 중간 해약이 가능하다. 또한, 사망 시까지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하다가 사망 후 주택처분 정산금이 그동안 지급한 연금액보다 많으면 유족에게 상속된다. 반면 주택처분 정산금보다 연금액이 많다고 해서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 주택연금

개요	연금 수령	특징
거주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으로 수령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담보대출 상환 방식 등	1. 집값의 등락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 수령이 가능 2.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 보장 3. 사망 후 주택처분 정산금보다 그동안 받은 연금 수령액이 많아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음

#### 주택연금 구조



# 똑똑한 인컴 투자로 평생 월급을 만들어라

##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 노하우

연금처럼 평생 주기적으로 현금이 나오게 하는 투자 방법이 있을까?  
매월 이자, 배당금이 나오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자.

저금리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인컴(income)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을 싼값에 사다가 비싼 값에 파는 매매차익 중심의 투자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자나 배당 등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이다.

상품마다 지급 날짜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목을 잘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매달 일정 금액이 내 계좌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국내와 달리 미국 등에서는 배당이나 분배금을 월별, 분기별 지급하는 상품도 많으므로 월배당 ETF나 고배당주 주식 등 글로벌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자.

### 인컴 투자로 월급 만들기



### 고배당주 주식

금리 및 물가 인상 리스크를 헤지(hedge)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을 거두고 싶다면 고배당주 주식으로 눈을 돌려 보는 게 좋다. 꾸준히 나오는 배당금이 고정 소득이 될 뿐만 아니라, 주식의 변동성이 갖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헤지해줄 수 있다.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금리보다 배당수익률이 더 크기 때문에 고배당주 주식은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으면서 일반 주식보다는 안전한 투자가 된다.

### 리츠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빌딩,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임대료 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는 리츠 등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큰 목돈 없이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보고 싶다면, 리츠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일반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 주가연계증권(ELS)

ELS(Equity Linked Securities)는 시장지수나 개별주식 등 기초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기 전까지는 원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약세장에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 신종자본증권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없진 않지만, 최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이 대체로 AAA(한국신용평가 기준)로 일반 기업 채권보다 리스크가 낮고 일반 은행예금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면 분기마다 이자를 받으면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월배당 ETF

ETF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때도 유용한 상품이지만 일반 계좌에서 인컴 자산을 불러갈 때도 적극 활용할 만한 상품이다. 저가에 잘 매수하면 배당금뿐만 아니라 주식처럼 가격 인상에 따른 자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월배당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인출하지 않고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다가 나중에 배당금을 인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 #. 은퇴 후 9회 말 인생,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투자신은 6번 브랜치존의 문을 열기 전에 두 눈을 감고 자신이 지나온 길을 잠시 돌아보았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2번 브랜치존이 먼저 떠올랐다. 사막을 횡단하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생존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했다. 도대체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던 말인가? 그 해답을 3번 브랜치존에서 만난 박사가 알려줬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라고 했다. 국민연금에 퇴직연금을 더하니 조금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그러나 여전히 생활비가 부족했다.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그에게 4번 브랜치존과 5번 브랜치존의 박사가 IRP 계좌 투자라는 비법을 전수해 주었다.



고배당주 주식, 리츠, 월배당 ETF 등 다양한 상품이 있지요. 똑똑한 인컴 투자로 평생 월급을 만들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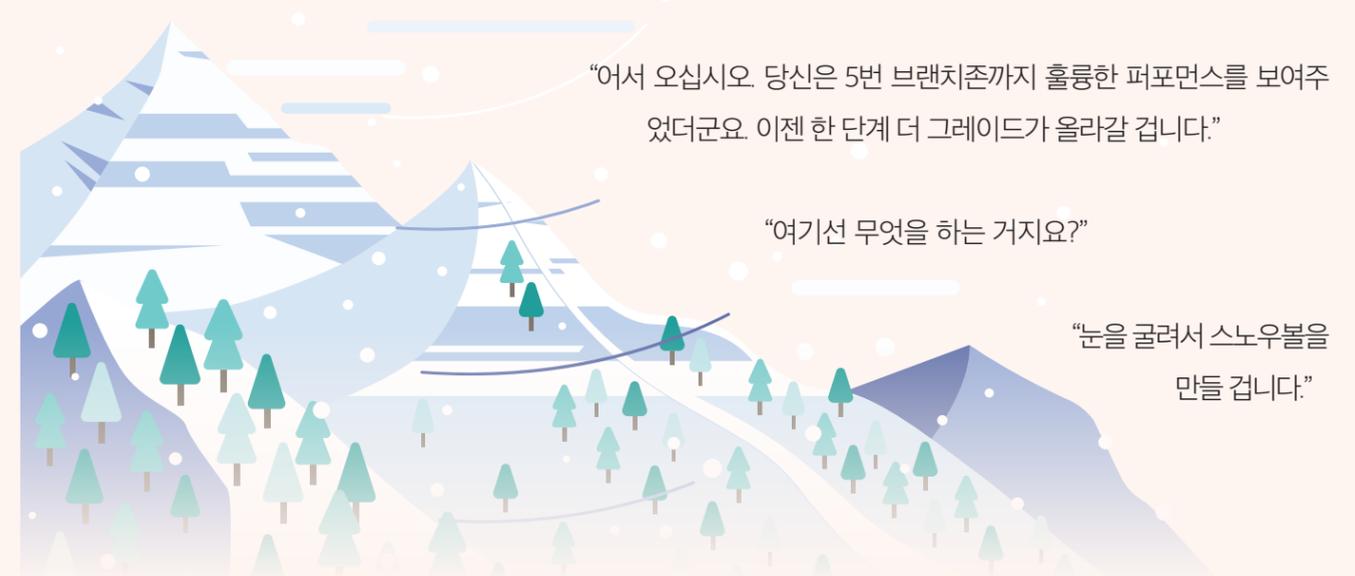
그래. 이제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연금설계와 인컴 투자, 그리고 얼마간의 모아둔 돈으로 은퇴 후 한동안은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가지고 있는 돈은 곧 바닥이 날 텐데 어떻게 하지? 더 나이 들어서 의료비 부담도 커지는 은퇴 후반 말년에는 어떻게 살지? 그 해답을 찾기를 기대하며 6번 브랜치존의 문을 열었다. 그런데...

“앗”

이번에는 사막이 아니라 설산이었다. 눈보라 속에서 6번 브랜치존의 박사6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5번 브랜치존까지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더군요. 이제 한 단계 더 그레이드가 올라갈 겁니다.”

“여기선 무엇을 하는 거지요?”

“눈을 굴러서 스노우볼을 만들 겁니다.”

투자신은 하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길을 내려다보았다. 금세 도착할 것처럼 가까운 거리였다.

“이 거리에서 무슨 스노우볼을 굴립니까?”

“여기서 보는 것과 실제 가보면 다를 수 있지요.”

투자신은 속는 셈 치고 천천히 눈을 굴리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슬로프는 너무 짧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목적지에 도착할 만하면 다시 길이 까마득히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가도 가도 길이 늘어났다. 스노우볼을 굴리느라고 온몸이 땀에 젖었다. 그러는 사이 스노우볼이 점점 커졌다. 저녁놀이 질 무렵 그는 지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제야 편안하게 리프트를 타고 내려와 있던 박사6이 기다렸다는 듯 다가왔다.

“다 오셨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당신의 스노우볼을 보십시오.”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앞에 집채만 한 스노우볼이 떡 하니 서 있었다.

“세상에! 이게 저의 스노우볼입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말년에 떨어지고 없을까 봐 염려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돈을 굴리십시오. 수명이 계속 늘어나니 장기투자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9회 말 인생 역전의 비결,  
바로 장기복리투자입니다.

# 06

## 고령화의 시간, 장기복리투자에 활용하라

연금이나 이자·배당 소득만으로  
그리 넉넉하지가 않네요. 가지고 있는 자산도  
턱없이 부족해서 금새 바닥이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5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러나 매월 200만 원을 사용한다면  
몇 년을 버틸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인플레이가 심하니 물가상승률 5%를 가정해 볼 때,  
16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은퇴 후 당신은 단 16년만 살까요?**

아니요! 100세는 족히 살지 모릅니다.  
수명이 계속 길어지니까요. 그러니 인생 말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장기복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거액이 아니라도 종자돈을 가지고  
스노우볼을 굴리듯이 10년, 20년  
투자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어느새 커다란 스노우볼이 될 것입니다.



## 은퇴, 진짜 자산 불리기에 좋은 나이!

### 은퇴자산이 아니라 종자돈을 마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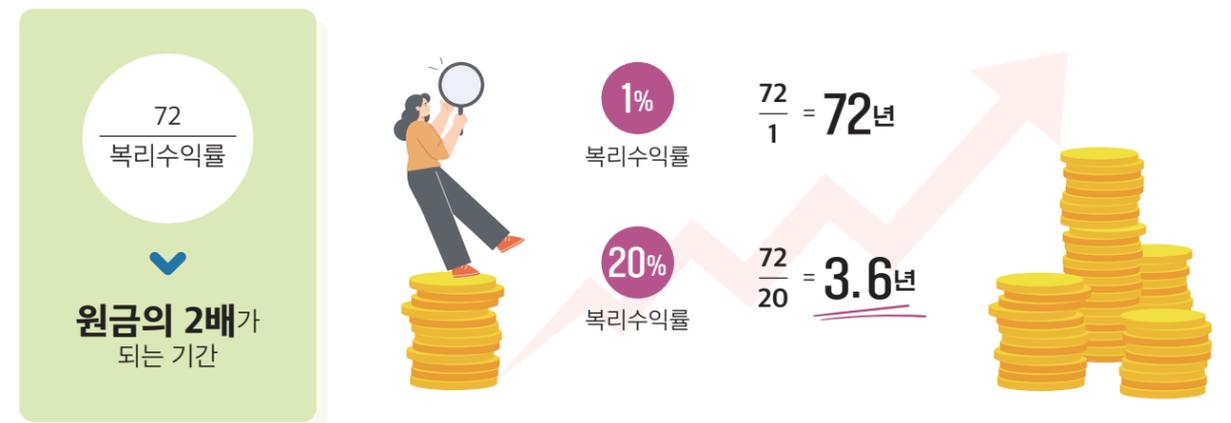
고령화가 우리에게 투자의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작은 종자돈이라도 장기복리투자를 통해 후반전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은퇴 이후엔 보수적으로만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다. 은퇴자금으로 5억 원을 마련한 사람이 물가상승률 5%, 월 200만 원 생활비를 사용한다면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정기예금으로 연 3% 수익을 거둔다면 대략 16년을 버티지만 수익률이 9%라면 38년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돈을 예금한다면 수명이 다하기 전에 돈이 먼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5억 원을 가지고 은퇴한 경우라도 장기복리투자로 자산을 불린다면 은퇴 후반의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장기복리투자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어느 정도 수익률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오래 투자해도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면 눈덩이가 쉽게 불어나지 않고, 반대로 수익률이 높아도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가 나려면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자산을 두 배로 불리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할 때 원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어림으로 계산해주는 '72의 법칙'이 있다. 72를 연복리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나온다는 것이다. 수익률이 1%인 경우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 72년이 걸리지만 수익률이 20%라면 3.6년이면 충분하다.

### 72의 법칙 "나의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



# 세상을 바꾸는 혁신에 투자하라

## 세상과 함께 내 계좌도 바뀐다

장기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 메가 트렌드에 올라탄다면 세상이 바뀌는 동안 내 계좌도 불어날 것이다.

장기복리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1~2년이 아니라 20년 후, 20년이 힘들다면 최소한 10년 후, 5년 후를 바라보고, 단기적인 전망을 넘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세상의 변화를 읽으면 투자 방향이 보인다.

은퇴할 때까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재테크 역량만 갖춘다면 작은 종자돈으로 시작해도 고령화로 늘어난 시간을 활용하여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만의 투자 역량을 연마하자.

### 4차 산업에 투자하라

세상의 대세에 올라타는 투자가 성공한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세상의 대세와 방향이 다르다면 수익을 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은 1900년대 산업혁명이 산업 및 기업들의 혁신적인 성장을 불러온 것처럼 새로운 성장 사이클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올라타야 수익을 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로는 전기차, 메타버스, 인공지능, 로봇틱스,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4차 산업 관련 우량종목에 투자해도 좋고, 관련 테마형 ETF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글로벌 시장으로 시야를 넓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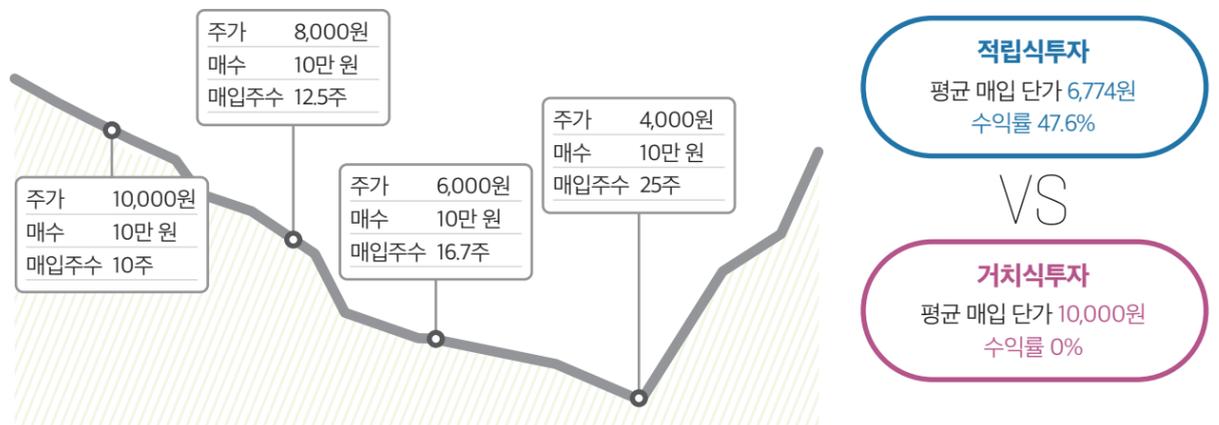
내 손의 모바일 안에 세계가 들어 있다. 이제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글로벌 시장을 파악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대다. 국내시장은 급속도의 고령화와 저성장 추세로 자산의 상승잠재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이 고도성장기에 있을 때는 국내 투자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국내시장에 머물러 있으면 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 장기적인 환율 리스크까지 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미국시장은 에너지 패권, 달러 패권, 친기업 정책을 가지고 있는 데다 제조보다는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보호무역 기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신흥국 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을 검토해 보자.

### 분할·적립식 투자로 리스크를 헤지하라

투자에는 늘 리스크가 따른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돈을 한 번에 투입하지 않고 나누어서 매수하는 '분할투자'를 하면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 고점에 물릴 위험을 최소화해 준다. 다만 장기적으로 주식은 우상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친 분할 매수는 오히려 평균 매수 단가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 특별한 시기나 확신이 가는 종목의 매수 찬스가 온다면 과감하게 배팅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소득의 일부를 매월 저축하듯이 하는 '적립식 투자'도 매수가격 변동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연금계좌에서 유망한 ETF를 매월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주가가 오르면 적은 주수를 매입하게 되고 주가가 내리면 더 많은 주수를 매입하게 됨으로써 매입단가가 낮아지고 보유량은 늘어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 적립식 주식투자 VS 거치식 주식투자



### 적립식 매입과 추가 매입의 타이밍



# 투자의 지경을 더욱 넓혀라

아는 만큼 벌 수 있다

금, 달러 등 보다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면  
상황에 맞는 분산투자로 원금 손실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투자는 주식과 부동산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정세,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불확실성 우려가 더해짐에 따라 좀 더 안전한 투자방식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금이 대표적 안전자산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투자방식의 장·단점과 변동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 ✓ 금 투자

다양한 금 투자방식이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서 접근성도 좋아졌다. 다만, 실물 금 투자 시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금값과 함께 금 관련 상품인 금 ETF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금 강세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실질화폐 가치는 하락하나, 금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구매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인플레이션 헤지수단으로 매력적이다. 또 금 펀드는 금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금 가격 이외에 환율 및 기업 실적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금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구매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인플레이션 헤지수단으로 매력적입니다.

이와 같이 금은 각각의 투자방식이 지닌 장단점을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 또한,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정세가 불안정하거나 금리 인상의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한 실물자산이라는 의미이지 변동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금은 주식 못지않게 변동성이 크다.

### ● 금 투자방식

골드바	골드 बैं킹	골드 ETF	골드 펀드	KRX 금시장
실물 구입	계좌 거래	국내/해외 금 선물 투자	금 선물 관련 기업 투자	증권사 통한 현물거래



### ● 금 가격의 변화 - 금 가격 장기 차트(1940년 이후)

※ 출처: 오건영 저, <부의 대이동>



### ✓ 달러 등 환테크

달러나 엔화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환율이 오를 때 되파는 직접투자가 가장 기본적인 환테크 방식이다. 다만 직접 매매를 할 때는 환수수료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달러 통장 등 외화예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외화예금 금리가 낮은 편이며, 환차익 외에도 추가적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펀드, ETF와 같은 금융상품도 있다.

또 달러로 거래되는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간접적인 환테크가 될 수 있다.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이 발생하며, 매도 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로 계속 보유한다면 그 자체가 달러 통장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해외주식 및 외화 보유는 국제정세가 불안정할 때는 안전자산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외화로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환전한다면 다시 환차익을 볼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엔화 가치가 하락하자 반등을 기대하며 엔화 관련 ETF뿐만 아니라 일본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어떤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환테크 시에는 환전수수료 우대가 가장 중요하다. 금융회사별로 우대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우대율이 좋은 곳을 찾아 거래하자.

### ● 원달러 환율 변동성(미국 USD)

※ 출처: 신한은행 매매기준율



# #. 소중한 내 인생, 마무리도 스마트하게!

집채만 한 스노우볼 앞에서 투자신은 벅찬 성취감을 느꼈다. 그리고 커다란 스노우볼과 함께 7번 브랜치존으로 이동했다. 평온해 보이는 방 한가운데 테이블이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테이블은 그 자체가 커다란 컴퓨터였다. 손을 대자, 불이 들어오면서 7번 박사가 화면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신의 인생도 9부 능선을 지났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스노우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긴요? 이것을 가지고 풍족한 말년을 즐겨야죠.”  
“그 다음에는요? 인생이 막을 내린 다음에 말입니다.”

그제야 그는 혼자 남게 될 아내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하는 자식들이 생각났다. 박사는 그의 마음을 읽은 듯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스노우볼이 녹아 없어지지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 잘 관리하다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떠난 다음에도 가족들이 고생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야죠!”  
“그렇다면, 당신의 토큰을 이곳에 갖다 대십시오.”



박사가 시키는 대로 토큰을 갖다대자 커다란 '시크릿 북'이 떠올랐다.

“책장을 넘기십시오. 당신의 스노우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비책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는 스노우볼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넘기기 버튼을 터치했다.

# 07 새로운 솔루션, 신탁에게 맡겨라

나이를 갈수록 한해 한해 판단능력이 떨어질 텐데 나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성은 빼앗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스노우볼을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나 **신탁을 활용하면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하지만 남한테 맡기면 내 맘대로 처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비용도 들어가고요.**

**걱정 마십시오. 철저하게 당신의 의견대로 설계하고 그 설계한 대로 모든 게 처리됩니다. 당신의 재산을 관리·운영·처분해 주는 집사를 고용하는 셈이죠. 비용이요? 얻는 효과에 비하면 가성비가 나쁘진 않죠.**



# 새로운 은퇴설계, 믿고 맡기는 '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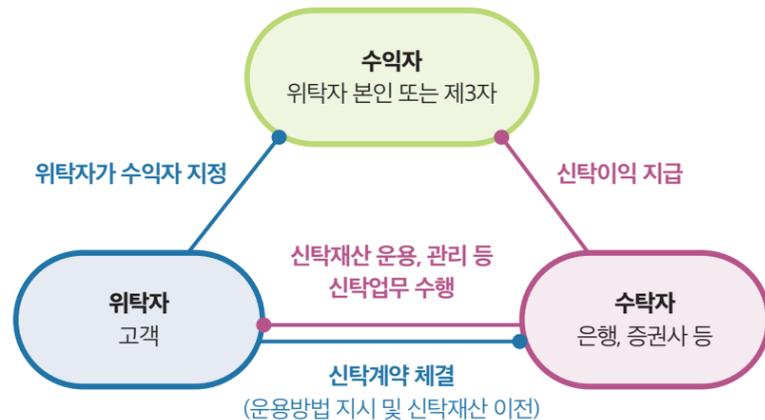
## 나 대신 전문가가 깔끔하게 처리한다

“지금은 내가 알아서 하지만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신탁을 활용하면 내가 설계한 대로 전문가가 척척 처리해 준다.

은퇴설계란 질병이나 고령으로 판단능력이 흐려지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포함해야 한다. 누군가는 치매가 걸렸을 때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상속이 이뤄지도록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 젊고 건강하더라도 자신보다 더 효과적으로 재산을 관리해줄 전문가가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이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탁이다. '신탁(信託)'이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뜻이다. 즉 자신의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의 관리·처분 등을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다.

재산을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라고 하고 위탁을 받은 기구를 '수탁자'라고 하는데, 주로 은행, 증권사, 부동산신탁회사 등이 수탁자에 해당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대로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 운영, 처분하고 그 이익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일 수도 있고 위탁자의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 등 제3자 또는 법인이 될 수도 있다. 신탁재산으로 설정된 재산은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되지만, 수탁자 및 위탁자의 재산과 엄격하게 구별되는 데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탁회사나 위탁자의 파산 등이 발생해도 신탁재산만큼은 안전하다.

### 신탁의 기본 구조



# 상속부터 치매까지 다양하게 설계

##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신탁은 그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치매신탁, 기부신탁, 장애인신탁, 공익신탁 등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 유언대용신탁

살아있는 동안 신탁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후에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는 신탁이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진위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특별한 요건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사후에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재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고 유산 분쟁도 방지할 수 있다.

### 장애인신탁

장애인 자녀를 위해 부모가 사망한 후에도 장애인 자녀에게 생활자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최종적으로 장애인 자녀에게 자산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신탁이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장애인에게 증여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탁을 통한 증여 시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

### 치매안심신탁

신탁계약을 한 위탁자가 치매로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치료비, 생활비, 간병비 등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하는 신탁이다. 젊은 시절 가입해 자산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다가, 이후 나이가 들어 치매를 진단받으면 지급청구대리인이 지급을 관리하고 사후 상속도 가능하다.

### 신탁의 종류

신탁 재산	금전	부동산	금전채권	증권	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 재산권	담보권	소극재산
신탁 목적	유언대용 신탁	증여신탁	후견신탁	치매신탁	기부신탁	장애인 신탁	이익증여 신탁	공익신탁 등	

신탁재산과 신탁목적의 결합에 따라 다양한 특화신탁 계약 설계가 가능함!

08

소중한 재산, 상속과 증여로 이어가라

살아있을 때 상속설계를 하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미리 한다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자식들에게 세금폭탄을 물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면 상속설계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상속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식들이 받는 재산 크기가 달라지지요. **자산가들이 괜히 상속·증여를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우선 사전증여를 검토해 봅시다.** 왜냐하면 사전증여는 상속과 달리 10년마다 공제금액 한도가 새로 생기는 데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율도 낮출 수 있으니까요.

상속과 증여, 어떻게 다른가?

세율은 같아도 과세방식이 달라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율 자체는 똑같지만 과세방식과 공제금액에서 차이가 있어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의 이전 시 상속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반면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과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 할까? 우선 세율은 상속세나 증여세나 동일한 10~50% 누진 세율로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상속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자동차 등) 가액을 모두 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에, 증여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별로 받은 재산 가액에 각각 과세한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빼주는 공제금액에서 차이가 있는데, 상속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증여보다 공제해주는 금액이 큰 반면 증여에서는 10년마다 새로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상속과 증여는 세율이 동일해도 과세방식과 공제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 부담에서 차이가 발생 한다. 각자의 상황과 재산의 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금액 비교 및 세율

※ 출처 : 국세청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상속세	증여세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6억 원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미성년자 : 2,000만 원)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 원 (2019. 12. 31 이전 상속분은 5억 원)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는 위의 세율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수증 시 40%) 할증



# 상속과 증여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 세금폭탄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절세 전략을 잘못 세우면 자칫 세금폭탄을 물려주게 되므로 전략적인 상속 설계가 필요하다.

사전증여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는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상속과 달리, 수증자가 받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과세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세율이 낮아져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면 최대한의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생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만 사전증여하다가 나머지는 상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복잡하게 증여 플랜을 짜기보다 차라리 상속으로 하는 게 간편하다. 또한, 증여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사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의 증여는 절세효과가 없을 수 있다.

### ✓ 세금 없이 부동산 물려주기

부동산을 자식에게 줄 때 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를 포함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채무를 넘기는 부모에게는 채무 부분만큼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 ✓ 세금 없이 주식 물려주기

부동산 증여를 받는 자식은 증여세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내야 한다. 그러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엔 취득세가 없고, 증여세 산정 시 5,000만 원(성인 자녀의 증여 공제 한도)까지는 공제가 될 뿐만 아니라, 증여 후 주가 상승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 #. 은퇴한 다음날...

7번, 8번 브랜치존에서 신탁, 상속·증여까지 컨설팅을 받고 나오자 푸른 빛이 감도는 자율주행 전기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사이드미러 대신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운전석에 앉으니 중앙에 있는 모니터에 전원이 들어왔고 모빌리티 인공지능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9번 브랜치존이고 저는 당신을 도와줄 박사입니다. 당신은 이제 9번, 10번 브랜치존만 통과하면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 썰라이프 타운으로 가는 티켓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단계라니! 가슴이 벅찼다. 차창 밖으로 자신이 추락하였다가 하나씩 지나온 광선로드와 계단이 길게 이어져 있는 사이로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저 깊은 어둠을 하나씩 헤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자 출발합니다. 운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율주행이니깐요.”

자율주행이라 핸들에 손을 댈 필요조차 없었다. 9번, 10번 브랜치존은 스마트 모빌리티 안에서의 대화였다. 인공지능 박사가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은퇴자산을 어떻게 준비할지,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상속·증여를 어떻게 할지 등 은퇴 후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임박한 미래, 즉 은퇴한 다음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은퇴한 다음날. 당신은 무엇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은퇴한 다음날이요?”

투자신은 자율주행차 안에서 지그시 눈을 감고 은퇴한 다음날을 상상해 보았다.

09

당장 필요한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활용하기



은퇴한 다음날 참 묘한 해방감과 함께 공허함이 밀려올 듯합니다. 그러나 곧 현실을 자각하게 되겠네요. **이제 월급날이 되어도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는 현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잘 대처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연금, 사적연금이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이 큰 도움이 됩니다만,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요?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세테크 등을 통해 새는 돈을 막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은퇴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고 재취업촉진수당도 받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수령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 취업도 수당도 챙겨보자.

은퇴 후 월급이 사라진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큰 보탬이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썼어도 희망(명예)퇴직, 임금 체불,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년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한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구직급여 수령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구직급여 수령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취업을 하면 구직급여가 중단된다. 대신에 조건 충족 시 재취업촉진수당의 일환으로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지급해주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그 밖에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지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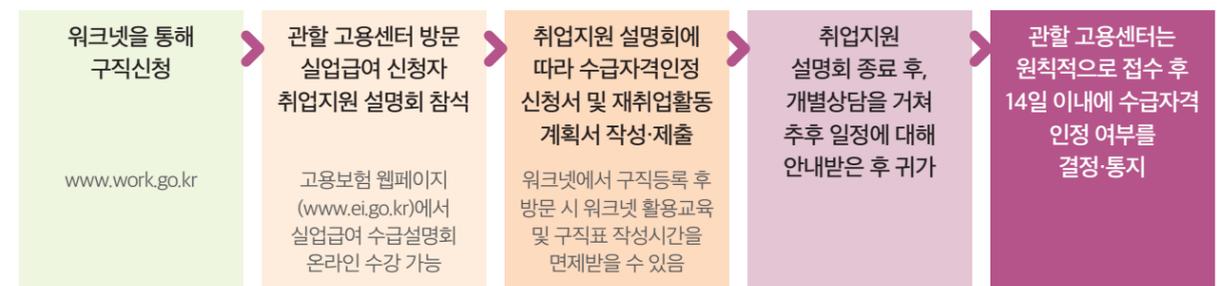
구직급여 수령기간(이직일 2019. 10. 1. 이후)

※ 출처 : 고용보험(www.ei.go.kr)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퇴사 연령(만)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출처 : 고용노동부



# 인생 2막을 돕는 내일배움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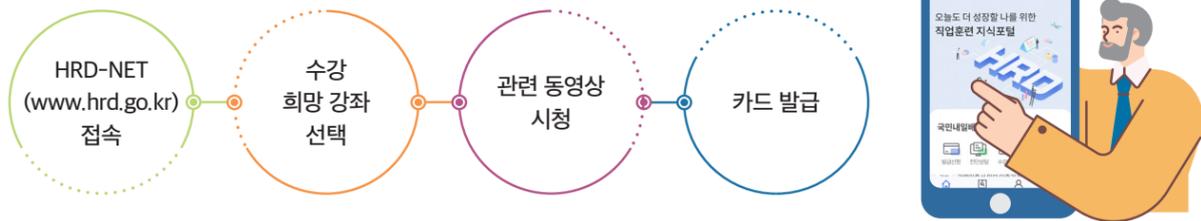
## 활용한 만큼 자기계발이 된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경비 부담 없이 다양한 직업훈련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받아 인공지능, 웹영상 콘텐츠 제작, 네일아트, 코딩, 제빵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고, 창업 준비, 기술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직장에 재직 중일 때도 이용할 수 있으니 자기계발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보자.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b>지원 대상</b>	<b>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b>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만 75세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
<b>지원 한도</b>	1인당 300만 원 ~ 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100% 지원 (재직자는 85%)
<b>유효 기간</b>	계좌 발급일부터 5년
<b>문의</b>	고용노동부 고객센터(T.1350), HRD-NET(www.hrd.go.kr)

### 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 10 [ 세금, 건강보험 등 새는 돈을 막아라 ]

은퇴하니까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서 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오네요. 월급도 없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피부양자 등재나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해 보세요. 새는 돈을 막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절세 전략이 중요합니다.

주식투자에도 세금이 나오나요?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인 것으로 아는데요.

곧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외주식은 물론 국내주식 양도소득 등도 통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본공제 5,000만 원이 있으니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부터 줄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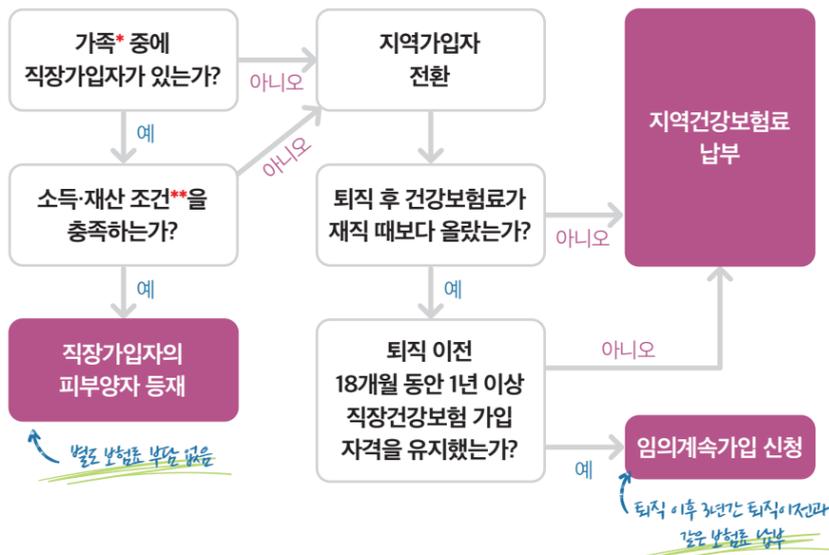
## 피부양자 등재, 임의계속가입 활용

은퇴 후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거나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급여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에도 집, 자동차 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월 부담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의 30%만 반영하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100%를 전부 다 반영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그렇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좋은 것은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를 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은 다 누릴 수 있는 데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다음 처음 받은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후 36개월 동안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기

※ 출처 : (사)한국FP협회, <은퇴설계 전문가>



- \*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며느리, 사위), 65세 이상인 자의 형제·자매
- \*\*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피부양자 제외 조건
  - ① 소득 : 연 2,000만 원 초과
  - ② 재산 :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초과 + 연 1,000만 원 이상 소득, 과표 9억 원 초과



#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

## 세금 줄이는 만큼 돈 버는 것이다

2022년부터 주요 세법이 달라지고,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서학개미, 동학개미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 ✓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실거래가액 9억 원 → 12억 원(2021. 12. 8.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1년 유예**: 2023. 1. 1. 양도·대여 분부터 시행
-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24년까지 발급 건수 등에 따른 금액을 연간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2022. 7. 1. 발급 분부터)
-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일반상속재산 5년 → 10년
- ✓ **기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 4,000억 원 미만
- ✓ **동거주택상속 공제 대상 확대**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를 확대
  -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허용

###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예정

현재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세율 22%, 250만 원 기본공제)를 부과한다. 또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반면(대주주만 과세), 배당 및 이자수익은 2,0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와 분리하여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2,000만 원 초과 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2023년부터 해외 및 국내주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중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투자 소득을 통합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b>해외주식 및 국내주식 양도소득 등</b>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b>공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 (5,000만 원 공제)</li> <li>• 기타 금융투자 소득금액 (250만 원 공제)</li> <li>• 손실 이월공제 : 5년</li> </ul>	<b>세율(지방세 포함)</b>  <b>22%</b> (3억 원 이하 시)  <b>27.5%</b> (3억 원 초과 시)	<b>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b>
--	--	---	-------------------------------------

# Ⅲ

## 시니어 라이프 ‘디지로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디지로그가 오고 있다. 디지털의 물결이 거셀수록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도 깊어진다. 이미 디지털 서비스에 인간적 감성을 담은 아날로그적 서비스를 더한 상품 및 비즈니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디지털 문화에 잘 적응한 디지털 시니어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해 보았기에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우리 사회와 경제 트렌드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 그들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 ‘디지로그’로써 새로운 삶의 트렌드를 조명한다.

이제, 디지털·Digital!  
다시, 아날로그·Analog!

# 이제, 디지털!

# Dig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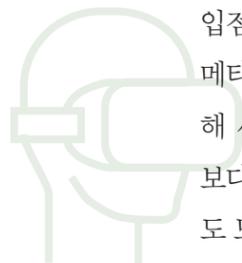
## 새로운 세상과 친해져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사회와 조우하고 있다.  
날로 혁신을 거듭하는 첨단기술과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사회로의 요구는  
디지털 사회로의 진전을 더욱 앞당겼다.  
전기차,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은 시니어들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세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상과 친밀해지자.  
당신의 시니어 라이프를堂堂하고  
자신감 넘치는 슌라이프로  
만들어 줄 것이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세상이  
온다**



**메타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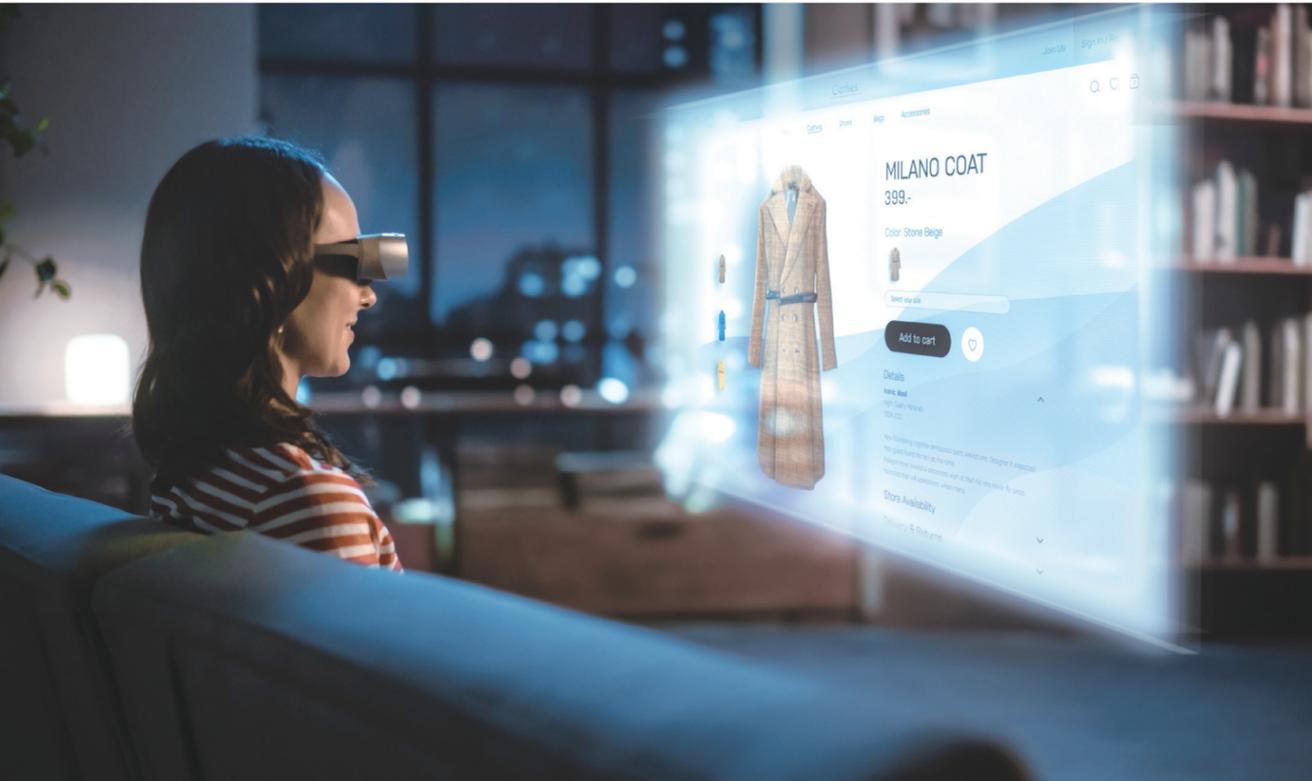
최근 메가 트렌드라면 단연 '메타버스(Metaverse)'다. 글로벌 기업 페이스북이 '메타플랫폼'으로 사명을 바꾸고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세간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었다. '메타버스'는 가공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나의 아바타가 실제 현실처럼 경제, 교육, 스포츠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아바타와 교류하면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ZEPETO)'에서는 방탄소년단(BTS) 등 인기 아이돌이 잇따라 쇼케이스를 열었고, 국내외 유명 브랜드들도 속속 입점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놀이들은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수많은 게임 유저들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다. 앞으로 사람들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메타버스 속에서 리얼 라이프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

**실재감테크**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완전한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혁신기술이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른바 '실재감테크'로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화를 볼 때 4D를 통해 실제 향기나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 메타버스도 실재감테크의 하나이다. 가상 인플루언서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가상 인물이 SNS 활동을 하면서 실제 인물처럼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과 소통한다. 진짜 인플루언서들도 울고 갈 판이다. 사이버 가수, 사이버 모델도 이젠 낯설지 않다. 이러한 실재감테크는 외상 후 스트레스나 알코올중독 등을 가상 현실을 통해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게임, 소셜미디어, 콘서트, 팬미팅 등 오프라인에서만 즐길 수 있던 취미, 놀이 등이 가상 세계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어디까지  
현실이고  
가상인지,  
알쏭달쏭하게**





### E-커머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장 급성장을 한 분야라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를 들 수 있다. 비대면 생활과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가 더욱 고성장했다. 특히 기존의 이커머스와 달리 최근 이커머스를 주도하는 것은 오히려 5060 세대들이다. 새로운 도구에 익숙해지자 젊은 층에 비해 주머니가 두둑한 5060 세대가 손가락 하나로 누리는 쇼핑의 재미에 푹 빠진 것. 또 최근 이커머스는 단순히 온라인 쇼핑을 넘어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 물건을 구매하는 '메타커머스'로 진화하고 있다. 메타커머스는 메타버스와 커머스의 합성으로서 가상공간에서 실제 제품 등을 구매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온라인 쇼핑을 즐기던 5060 세대가 이젠 온라인을 넘어 가상세계에서 명품백 쇼핑에 대거 나서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 언택트

## 쇼핑을 넘어 가상세계를 누빈다

## 고유가 시대에 더욱 빛나는 존재감

### 스마트 모빌리티

내연차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미래영화 속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던 전기차, 수소차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와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혁명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엔진 대신 배터리가 장착된다. 또한, 꿈의 연료라고 불리는 수소가 트럭을 움직이게 된다. 단순히 기름이 전기나 수소로 전환되는 수준이 아니라, 빅데이터, AI, 5G 등 혁신기술과 접목되면서 자동차는 이동 수단을 넘어 거대한 스마트폰으로 변신하는 중이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운전자와 차가 소통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차, 그리고 교통 및 통신 인프라 등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완전자율주행까지 실현된다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 차 안에서 주행 중에도 게임을 하거나 영화 관람을 즐길 수 있다. 또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고령으로 운전을 그만둔 어르신도, 신체적 장애로 운전이 어렵던 사람도 자유로운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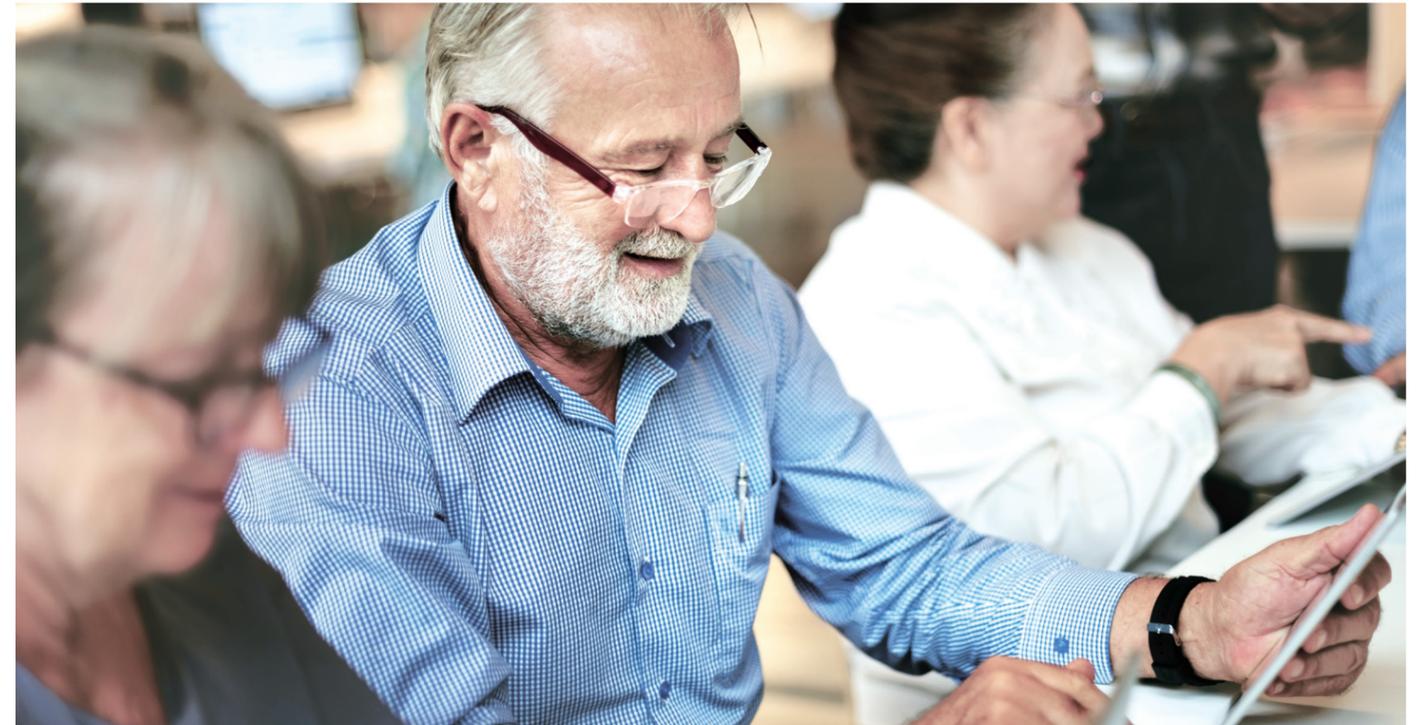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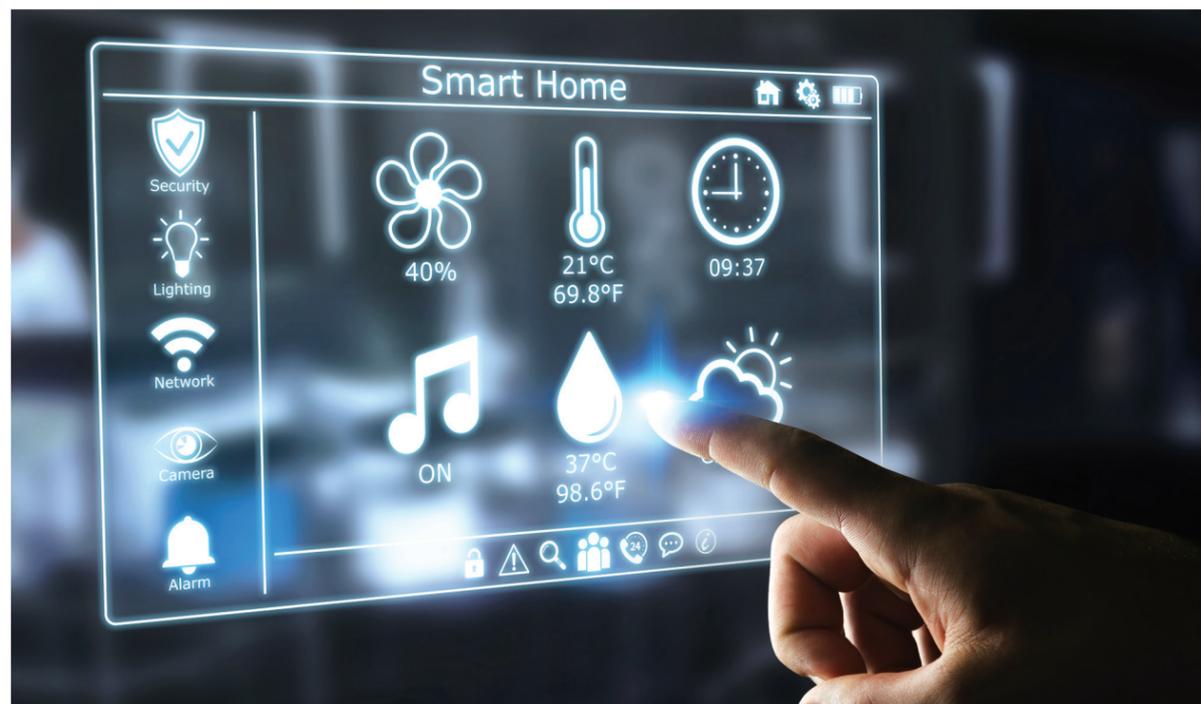


**스마트 홈**

디지털 사회에서는 가정의 모습도 달라진다. TV,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수도, 전기, 난방 등의 에너지 장치, 그리고 도어 록, 감시카메라와 같은 보안기기까지 모든 것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내 맘대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홈으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안은 물론 외출해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안의 조명, 가스, 난방 등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집에서 자동차로 연결하여 자동차 시동, 문 잠금, 비상등, 온도 조절, 전기차 충전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홈투카(Home to Car) 서비스도 나왔다. AI를 활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제품도 있는데, 특히 옷감을 분석하여 최적 세탁 코스를 제안한다거나 반려동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 청소기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내 맘대로  
편리하게  
우리 집 플랫폼**



**디지털  
네이티브족으로  
변신하는  
시니어들**

**디지털 시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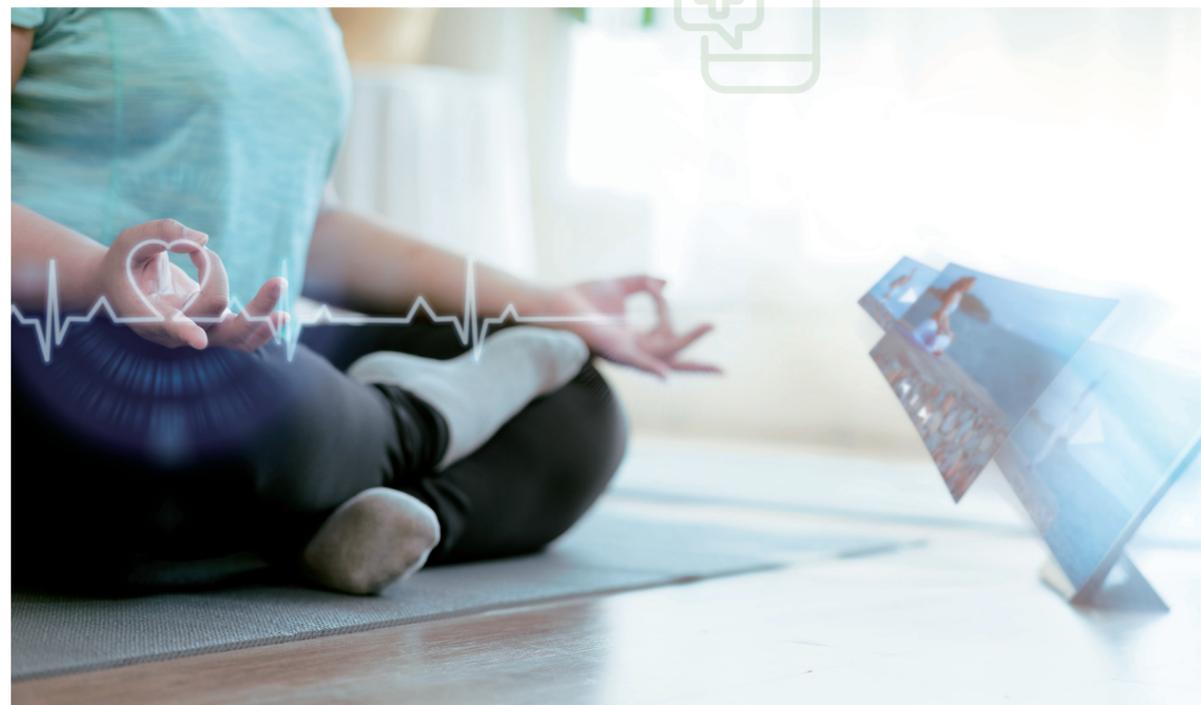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MKYU'에서는 '찾아가는 디지털 튜터'를 통해 디지털에 낯설어하는 시니어들에게 일대일로 디지털 교육을 서비스한다. '서대문구'는 디지털 튜터를 관내 경로당에 파견하여 와이파이 설정, QR 및 키오스크 사용, 메타버스 이용 등 디지털 활용을 안내하고, '상주시'는 '찾아가는 실버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을 하는 등 지자체 교육도 많다. 모든 금융거래가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신한은행에서는 '시니어 고객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을 오프라인 실습으로 제공하고 있다. 금융교육 플랫폼 '신한이지'에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도 있다.



### 헬스케어 플랫폼

요즘 디지털 시니어들은 건강관리도 스마트하게 플랫폼을 활용한다. 이미 다양한 플랫폼을 경험, 그 편리함을 알게 된 시니어가 늘어난 만큼 차별화된 건강관리 플랫폼에 대한 니즈도 커지고 있다. '똑닥'은 모바일 진료 예약 접수, 사전 문진 등을 제공하여 병원 체류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5060 세대의 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였다. 시니어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팔팔케어'는 "치매 없이 99세까지 팔팔하게"를 표방하며 인바디부터 스마트 운동시스템까지 시니어를 위한 헬스케어 솔루션, 치매 예방을 위한 VR 인지재활훈련 등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쇼룸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체험하고 앱(88케어플러스)을 통해 관리한다. 신한금융투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케어네이션'은 간병 업계의 대표 플랫폼으로 고객이 직접 간병인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칭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였다.

## 디지털 시니어 건강관리는 플랫폼에서 맞춤형으로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 팔팔케어

치매 진단 및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 첨  
단 VR를 통한 인지 재활훈  
련, 앱을 통한 자신의 건강  
정보 체계적 관리



비대면 진료 솔루션 제공

### 똑닥

병원 예약 접수뿐만 아니  
라 사전 문진, 진료비 결제,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  
스까지 제공



간병 업계의 대표적인 플랫폼

### 케어네이션

전국의 환자, 보호자가 원  
하는 간병인을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맞춤형 매칭 서  
비스, 결제와 정산까지 전  
자동화



요양보호사 구인 서비스

### 에리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요양 인력의 정보를 상세  
하게 확인 가능하며 위치  
기반 서비스로 내 주변의  
요양보호사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가천대에서 운영하는 체험관

### 바람개비 스마트 헬스케어 시니어 체험관(오프라인)



다양한 4차 산업기기를 시니어들이 직접 체험해  
보고 스마트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A close-up photograph of a hand adjusting a vinyl record on a turntable. The hand is on the left, with fingers touching the edge of the record. The turntable is in the center, with a stylus resting on the record. The background is blurred, showing a colorful, abstract light pattern. The overall mood is nostalgic and artistic.

**다시, 아날로그!**

*Analog*

## 아날로그 감성이 귀환하다

기술의 발전은 잃어버린 혹은  
잊어버린 따뜻한 감성, 사람의 체온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최첨단 디지털 사회 속에서  
다시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라이프 스타일,  
패션과 문화, 상품들이 다시금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이유다.  
신한은행이 2021년 7월 서울 서소문동에  
‘디지로그 브랜치’ 1호점을 시작으로  
디지로그 브랜치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도, 디지털 기술 위에  
따뜻한 감성을 더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는 취지에서다.

휴먼터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줄어들고 모든 일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언택트 사회가 되었다. 또 혁신기술들이 그러한 언택트 사회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고립된 인간의 외로움, 첨단기술이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가 커졌다. 가슴의 빈 곳을 채우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휴먼터치(Human Touch)를 소환해 냈다. 휴먼터치란 기술에 인간의 온도와 감성을 담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기술은 편의를 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휴먼터치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사람과 소통하는 AI 스피커에도 휴먼터치의 감성이 담겨 있다. 일본에서는 사람이 쓰다듬으면 복슬복슬한 털과 꼬리가 반응하는 반려로봇이 큰 관심을 끌었다. 기술의 완성이 휴먼터치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마케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는 신한은행에서도 디지털과 따뜻함이 함께 하는 미래금융공간이라는 파격적인 콘셉트로 '디지로그 브랜치'를 계속 오픈하고 있다. 디지로그 브랜치는 디지털 역량과 함께 안락한 휴식, 문화, 재미 등 휴먼터치의 경험을 고객들에게 선사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차가운 기술 위에  
따뜻한 손길 더하다**



**MZ세대가  
쏘아 올린  
아날로그 감성**

뉴트로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MZ세대, 2030 젊은이들이 과거 그때 그 시절의 불편하고 촌티(?) 나는 감성을 찾기 시작했다. 이른바 뉴트로(Newtro) 열풍이다. 단순히 옛것을 따르는 복고나 레트로를 넘어 젊은 세대들이 향유하는 '새로운 레트로(new+retro)' 말이다. 이들은 LP로 음악을 듣고, 손편지를 쓰는 등 그때 그 시절의 문화를 새롭게 소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서울레코드페어가 열리던 날 한파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LP를 사겠다고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길게 대기 줄을 선 일은 이슈가 되기도 했다. 기성세대를 키운 레트로 감성이, MZ세대에게는 낯설기에 더욱 신선하게 다가오는 듯하다.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도심 속 자연으로

### 러스틱 라이프

러스틱 라이프가 대세다.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란 '날 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며 도시 생활에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을 뜻한다. 최첨단 디지털 시대인 지금 오히려 사람들 마음속 잠자던 녹색 본능이 눈을 떴나 보다. 러스틱 라이프에는 4단계가 있으니 자신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자신만의 러스틱 라이프를 설계해 보자. 1단계는 그냥 떠나기, 2단계는 잠시 머무르기, 3단계는 자리 잡기, 4단계는 등지 틀기이다. 잠시 시골에 다녀오는 가벼운 단계부터 시골에 아예 등지를 틀고 생활하는 심화 단계까지 다양하다. 녹색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 낯선 농촌으로 귀농까지 하고 싶지 않다면, 심신이 지친 어느 날 훌쩍 도시 외곽의 자연 속 카페를 찾아 은은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내안의 녹색 갈증을 획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 필름 카메라

최근 효율적이고 간편한 디지털 카메라, 모바일 카메라 대신 '필름 카메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무한히 찍을 수 있는데도, 굳이 필름 수를 생각하며 찍어야 하고 찍은 후엔 사진관에 직접 가서 현상을 맡기고 하루 이틀을 기다려야 하는 이 느리고 다소 비효율적인 필름 카메라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이도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모든 사진들은 그저 하드디스크나 메모리카드에 쌓여만 갈 뿐 인화된 사진이나 가족 앨범도 남지 않았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된 것일까? 필름을 현상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폐업 위기에 처했던 동네 사진관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는 듯하다. 필름 값에 현상비까지 부담하고 발품을 파는 수고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처럼, 아날로그의 감성이 디지털 사회의 정점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가슴에 다시 스며들고 있다.

## 디지털의 뒤안길에서 다시 부활하다





---

**발행처** 신한금융그룹 퇴직연금부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본점 14층(태평로 2가)  
T. 02-2151-4811

**발행일** 2022. 6. 20.

**편집위원**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부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1(퍼스텍빌딩)  
T. 02-786-2999  
[www.kyungsungmedia.com](http://www.kyungsungmedia.com)

**작성·교열** 박은몽(작가)

※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신한금융그룹 퇴직연금부문의 허락 없이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